

할렐루야! 이 세상을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총칼의 압제와 권세가 위협할지라도 주의 자녀들을 주의 손길로 늘 보호해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레위기 26장6절

### 캐나다 산불 연기 미 북동부 장악 뉴욕시 대기오염 세계 최악

CNN 뉴스에 따르면, 퀘벡에서 발생한 100건 이상의 산불에서 남쪽으로 유해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뉴욕시는 지난 6일 화요일 일부 지역에서 세계 최악의 대기 오염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북동부와 대서양 중부 지역을 일주일 이상 주기적으로 뒤덮으면서 지속적으로 나쁜 대기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욕시의 대기질 지수는 화요일 밤 한때 200을 넘어섰는데, 이는 IQair에 따르면 "매우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다. IQair에 따르면 이 도시는 화요일 오후 10시(동부 표준시)에 주요 대도시 지역 중 최악의 공기질을 보였다.

화요일 밤 늦게 뉴욕시는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최악의 대기 오염 수준을 기록했다고 IQair가 보도했다.

뉴욕시도 화요일 아침 잠시 1위를 차지했다.

그 결과 뉴욕주 중심부에 있는 최소 10개 학군이 화요일 야외 활동과 행사가 취소되었다. 이러한 활동에는 학업, 운동 및 과외 행사가 포함되며 야외 쉬는 시간과 체육 수업도 취소되었다고 발표했다.

산불 연기에는 아주 작은 입자상 물질(PM2.5)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은 가장 작지만 가장 위험한 오염 물질이다. 흡입하면 폐 조직 깊숙이 들어가 혈류로 들어갈 수 있다. 화석 연료의 연소, 먼지 폭풍 및 산불과 같은 출처에서 발생하며 천식, 심장병 및 기타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기 오염 관련 건강 문제로 사망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6년에 약 420만 명의 조기 사망이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다.

화요일 뉴욕시의 대기 중



PM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지침의 10배 이상이었다.

"연기를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염이 심한 상황에서 실내에 머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이나 증상의 발달을 주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Barrett은 산불 연기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은 연기에 노출될 때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Barrett은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우려되는 증상에 대

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라"고 말했다.

Canadian Interagency Forest Fire Center에 따르면 "이번 주 퀘벡에서 150개 이상의 활성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는 다른 캐나다 주에서 발생한 화재 수의 두 배 이상이다"라고 보고했다.

2023년 현재까지 퀘벡 전역에서 4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는 이맘때 평균의 두 배이다. 캐나다에서는 올해 지금까지 거의 900만 에이커가 산불로 불탔으며, 퀘벡에서만 거의 50만 에이커가 불에 탔다.

산불 연기가 서쪽으로 디트로이트와 시카고로 퍼지면서

화요일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 대기질 경보가 발령되었다.

시카고의 국립기상청은 "기상 조건은 광범위한 오존 및 미립자 수준이 대기질 지수의 민감한 그룹에 유해한 범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활동적인 어린이와 성인, 특히 천식과 같은 폐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트로이트는 화요일 오후 IQair가 선정한 대기 오염 최악의 지역 10위 안에 들었다. 시카고의 대기질은 화요일 오후에 보통이었고 앞으로 며칠 동안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면으로 계속)



### 지구 온도 1.5°C 이상 높아질 수 있다! BBC, 환경 전문가 매트 맥그라스 사상 최초 '기후 재앙 마지노선 1.5°C, 돌파 가능성 크다' 경고

지난 17일, 앞으로 5년 이내에 기후 변화의 주요 마지노선이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사상 최초로 나왔다. 2027년경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암울한 경고다 (Global warming set to break key 1.5C limit for first time).

유엔(UN) 산하 기구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Global temperatures set to reach new records in next five years).

인간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과 올해 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엘니뇨로 인해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5°C 기준점" 돌파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로 인해 화석연료 배출량이 실제로 증가하기 시작하기 이전인 19세기 후반보다 1.5°C 더 올라간다는 의미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준점 돌파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록 단 1년 만일이라도 기준점을 돌파했다는 사실 자체는 지구 온난화 속도가 줄어드는 커녕 가속하고 있다는 뜻이기에 걱정스러운 신호다.

한편 '1.5°C 기준점'은 세계 기후 대화의 상징이 됐다. 지난 2015년 전 세계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제한하고자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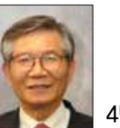
(15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푸른초장 박병섭 목사



4면 6.25 73주년을 맞으며 최학량 목사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 요셉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요셉장학재단(The Joseph Scholarship Foundation)이 목회자 양성을 위한 2023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요셉장학재단은 퀸즈장로교회를 개척해 미주한인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고 장영준 목사의 목회와 사역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b>신청자격</b>	미국내 신학교 재학생 (M.Div, Th.M, D.Min, Ph.D)	<b>신청 마감</b>	2023년 7월 10일(월)
<b>신청서류</b>	1) 목회에 대한 사명감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신앙고백문 (1장, 한영 가능) 2) 추천서 2통 (출석교회 담임목사 1통, 재학중인 신학교교수 1통) 3) 재학 중인 신학교의 성적 증명서 4) 이력서 (사진포함)	<b>장학금수여식</b>	2023년 8월 2일(수) 오후 8:00 퀸즈장로교회
<b>신청 접수처</b>	우편: 36-14 165th St. 3AN, Flushing, NY 11358 이메일: thejosephscholarshipfoundation@gmail.com	<b>문의</b>	정기태 목사 (917-733-7387)

장학생에 선발된 학생은 재단에서 전화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합니다. 선발된 신학생은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장학금은 M.Div (신학생) 중심으로 수여합니다.

선발인원: 10명내외 개인당 2000불 지원

**요셉장학재단 대표: 장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겸손함으로 헌신하며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해낼 귀한 차세대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을 꼭 찾게"

발행인 칼럼

인생은 아름다워



김성국 목사 (권장장로교회 담임)

인생이란 무제가 내겐 너무 크게, 그리고 아주 세계 부딪혀 왔다. 내가 여섯 살이 지난 후 얼마 있지 않아 나를 낳아주시는 어머니가 하늘 나라로 가셨다. 더구나 최희준씨의 노래를 흥얼거리게 된 것은 열 살이 채 안 된 듯싶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어울려 가는 길에----' 그리고 아직 초등학생으로 있을 그 때에 어느 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속히 외우라고 한 문장 속에는 나도 모를 내 인생의 역사적 사명이 담겨 있었다. 이른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보다 앞서 거대한 역사의 파고(波高), 4.19와 5.16은 일찍 감치나를 지나갔다. '저 하늘에도 슬픔이'와 신성일, 엄앵란씨 주연의 '맨발의 청춘'도 초등학교 때에 알고(?) 지냈던 영화였다. 그 때 자우 제목으로 쓸 수 있었던 어린이 글짓기 대회가 있었다면 필자는 '아-인생이여'라는 제목으로 썼을지도 모르겠다.

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 나오는 조슈아는 나보다 더 어린 아이였다. 조슈아는 유대인 아버지와 이탈리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슈아는 유대인 포로수용소에서 아버지 귀도와 함께 지낸다. 귀도는 조슈아를 독일군들이 모르는 곳에 숨겨 두고 음식을 갖다 주면서 포로수용소를 거대한 게임 장(場)이라고 돌려댄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1,000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탱크를 상으로 받는다고 했다. 귀도는 조슈아에게 울거나, 엄마가 보고 싶거나, 배고프다고 하는 등 소리 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조용히 지내 나치에게 안 잡히면 1,000점을 얻어서 탱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어느 날 귀도는 나치에게 끌려가 처형을 당하는데 이 끌려가는 장면조차 조슈아는 게임 중의 하나로 여겼다. 영화는 조슈아가 더욱 자라난 시점에서 회상하면서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영화 제목을 두둔한다. 대단한 관점이다.

그렇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 3:2-11) 의심할 여지 없이 인생의 모든 순간은 아름답다. 하나님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곧 지나갈 오늘의 순간을 보다 깊고, 넓고, 길게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주제가 버겁게 찾아 왔던 어린 아이 때의 시간들이 떠오른다. 돌이켜 보니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었을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어린 아이가 아닌 오늘도 그렇다. 오늘의 나의 상황은 오늘의 시점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 해변을 찾아오는 잦은 파도가 끝내 물러갈 것을 알기에 그 파도를 무섭다고 말하지 않고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던가. 나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오늘이라도 이렇게 고백한다. '인생은 아름다워'

서해 NLL 탈북 가족의 증언, 현재 북한 상황

'북한 극심한 식량난에 인육 취식 소문' BBC 보도

지난달 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두 가족은 "정도로 식량난이 극심한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일부 마을에서 인육 취식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돌

BBC 코리아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북한의 코로나 봉쇄 조치에 이어 올해 초 쌀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식량난이 가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확인된 이 자료에는 당시 이들이 서해 탈북에 사용한 어선 사진, 코로나 봉쇄 조치와 당국의 주민 감시 강화 등 북한 실상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유상범 의원과 정부 관계자 등을 통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길이 10미터 5톤급 목선 타고 탈북

김 씨 형제 가족이 타고 온 어선은 길이 10미터에 규모 5톤급으로 비교적 작고 낡은 목선으로 확인됐다. 이 목선은 김 씨 형제 중 동생이 직접 운항하던 어선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북한 황해도에서 선장으로 일해왔다고 진술했다. 김 씨 형제는 가족들을 이 배 갑판 아래에 태운 뒤 황해도 강령에서 출발, 지난달 5일 NLL을 넘었다. 이들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한국군을 보자마자 귀순 의사를 밝혔다. 강령군은 북한 황해도 남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다. 북한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 중에서 최남단에 해당한다.

북한 주민이 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다.

형제 중 둘째가 탈북 주도

이번에 어선을 타고 탈북한 북한 주민은 모두 9명이다. 30대인 두 형제와 이들의 아내를 포함해 형제의 모친, 비교적 젊은 50대 장모(형제 중 둘째의 장모), 김 씨(둘째)의 처남, 김 씨(둘째)의 첫째 딸(5세)과 막내아들(3세) 등이다. 김 씨의 형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형제는 북한에서 한국 방송을 몰래 시청하며 한국 문화 사정에 밝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북한에서 선장으로 일했고, 형은 북한에서 일반 기업소에 다녔다고 한다. 유상



범 의원은 BBC 코리아에 "김 씨 형제는 노동당 당원이 아닌 일반적인 서민층"이라고 말했다. 이번 탈북은 선장으로 일했으며 바다 사정에 밝았던 동생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전언이다.

'자녀 세뇌 피해 탈북'

극심한 생활고도 고향을 떠난 주된 이유였지만 탈북 동기의 전부는 아니었다. 유상범 의원은 "형제 중 둘째인 김 씨는 '왜 하필 지금 탈북을 선택했는지'와 관련해 '첫째 딸이 유치원에서 세뇌 교육을 받기 전에 탈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어린이들은 6살에 유치원에 들어간 뒤, 7살에 소학교(초등학교)에 입학한다. 태어날 때부터 김정은 일가에 대한 세뇌 교육 환경에 놓이지만, 체계적인 세뇌 교육은 의무교육 제도에 포함되는 유치원 때부터 본격화된다. 이들은 이런 세뇌 교육을 자녀에게까지 받게 할 수 없었기에 자녀의 유치원 입학 전에 반드시 탈북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봉쇄로 식량난 가중

서해를 통해 탈북한 김 씨 형제 가족들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전했다. 가장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가 북한 내부의 구체적인 코로나 상황에 대해 증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술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해까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상당수 주민이 코로나에 걸렸다. 김 씨 형제 가족들은 "상당수의 주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지역의 경우, 마을의 리단위로 격리 조치가 이뤄지는 등 대규모 봉쇄 정책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북한의 물자 생산 유통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경제난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 해안 지역에선 주민 상당수가 건설 수산사업소에 이틀만 등록해 놓고 출근하지 않은 채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 통제 감시 강화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감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지역과 남부 해안 지역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이 강을 넘거나 어린이들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 수산사업소 노동당위원회는 흑시라도 있을지 모를 해상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체계가 필요하며 각 선단장들에게 감시장비(카메라, 배터리, 컴퓨터 등) 구입 후 어선에 설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복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담임목사 청빙 광고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살렐 벨엘 교회에서 함께할 담임 목사를 찾습니다
살렐 벨엘 교회는 ARP 교단 제1회 노회 소속이며 노스 캐롤라이나 살렐에 위치 하고 있고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27년동안 우리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기에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차기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자, 한국어와 영어 모두 능통한 자,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 로써 이민법상 신분에 문제가 없는 자, ARP 교단에서 인정 한 학교의 M Div. degree 이상 소유자, ARP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인준 기준에 결격 사유 없는 자, 이민교회 목회 사역 3년 경력 이상 (전도사 포함 5년 이상),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 공부 한 자
제출 서류: 이력서 (사진과 가족사항 포함), 자기소개서 (사역 경험과 목회 비전 포함), 목사 안수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설교영상
원서 접수 마감일: 2023년 7월 31일
관심있는 분은 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들이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세요.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의껏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 위원장 이민혁 장로 email: bethelkc7121@outlook.com Cell: 704-724-2465
살렐벨엘교회 청빙위원회
7121 Delta Lake Dr, Charlotte, NC 28215 | (704) 566-7173

한인 커뮤니티를 위하여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와 기관들이 함께 준비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
1차 세미나
일시: 5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장소: American West University
1818 S. Western Ave. #203 LA CA 90006
후원: 재미한국노인회
날짜 주제 강사
5/12 (Fri) 불안 장애 Anxiety Disorder 수잔 정 박사, 카이저 정신과 닥터
5/19 (Fri) 양극성 장애 Bipolar Disorder 김경준 박사, 워싱턴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5/26 (Fri) 우울증 Depression Disorder 수잔 정 박사, 카이저 정신과 닥터
6/ 2 (Fri) 약물 중독 Addiction 한영호 목사, 나눔 선교회 대표
6/ 9 (Fri) 강박 장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김경준 박사, 워싱턴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6/16 (Fri) 죽음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나승렬 목사, Salt 4 Co-Chair / 약속의 교회
워크샵 참석 베네핏
1)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정신건강 정보 안내서 무료 증정
2) 세미나 후 10명의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정신건강 내비게이터들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영어로 서신 작성 대신 해 줌.
3) 간단한 간식과 음료 제공
프로젝트제공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hope. recovery. wellbeing.
ASK
Good Life Care Resource Center
3388 W. 8th St. #103 LA CA 90005
Korean Navigation Mental Health Project
컨설턴트 (Consultant) : 김효철 (Hyocheol Kim)
213.820.8855 | khckjo@gmail.com

# “기독교인들, 성경과 신앙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

## 미국성서공회, 2023 현황보고서 발표

The Christian Post지는 미국 성서공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은 성경과 그들의 신앙이 깊이 관여되어 있고 인간 경험의 모든 영역에서 번창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 성서공회가 2023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State of the

Bible 보고서의 데이터는 미국 성인들로부터 수집된 2,761개의 응답을 기반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 2.59%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크리스찬 포스트지가 발표한 내용이다.

“우리의 연구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 즉 성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신앙에 헌신하고 성경에 온전히 참여하며 성경의 메시지로 변화된 기독교인이 인간 경험의 모든 영역에서 번창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또한 “성경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고난을 겪지만, 차이점은 그들은 성경의 희망의 메시지에 의해 형성된 세계관을 통해 삶의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을 통해 그와 연결되는 사람들은 아직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 “정신과 신체 건강”, “의미와 목적”, “성경과 미덕”, “친밀한 사회적 관계” 등 전체적으로 인간 번영 지수에서 기독교인의 평균 점수는 7.8점, 비실천적 기독교인은 6.9점, 비기독교인은 6.7점이라고 밝혔다.

이 현상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 영역으로 확장되어 기독교인의 평균 점수는 7.8점, 비실천적기독교인은 6.8점, 비기독교인은 6.5점, 의미와 목적에 관해서는 실천적 기독교인은 평균 8.1점, 비실천적 기독교인은 평균 6.9점, 비기독교인은 6.4점을 기록했다.

State of the Bible 연구는 “성경 사용 빈도와 그 메시지의 영향 및 중심성”에 대한 14가지 질문에 대한 개인의 응답을 측정하는 성경 참여 척도의 점수에 따라 응답자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Bible Engagement American은 Bible Engagement Scale에서 10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들로 정의되며, Movable Middle은 70에서 99 사이의



점수를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Bible Unengaged는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사람들로 정의됐다.

성경에 관심이 있는 미국인은 인간 번영 지수에서 평균 7.9점을 받았고 Movable Middle은 7.1, Bible Disengaged는 6.7점을 받았다. 평균 점수 7.8점을 받은 응답자들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 Movable Middle(6.9)과 Bible Disengaged(6.6)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Bible Engaged는 의미와 목적 영역에서 평균 8.3점을 받은 반면, Movable Middle과 Bible Disengaged는 각각 평균 7.0과 6.5점을 받았다.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고 “강하게 동의”하는 사람들은 인간 번영 지수에서 평균 7.8점, 행복과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 평균 7.7점, 평균 8.0점을 받았다. 의미 및 목적 영역에서, 반대로 “성경의 메시지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에 대해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은 각 척도에서 평균 6.5, 6.4, 6.2점을 받았다.

지난 7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자들은 인간 번영 지수에서 평균 7.2점

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은 평균 6.6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기도한 사람들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 평균 7.1점, 심신 건강 영역에서 평균 7.0점을 받았고 지난주에 기도하지 않은 응답자는 두 영역에서 평균 6.5점을 받았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은 용서를 구하든 안 하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동의한 응답자는 행복과 삶의 인간 번영 지수(7.7)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받았으며 만족 영역(7.5) 및 의미 및 목적 영역(7.7)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데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각각 6.0, 5.8, 5.8로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인간 번영 지수(Human Flourishing Index) 및 다양한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 외에도,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력하게 동의하는 응답자는 사람들의 “인내하려는 동기”를 조사하는 인내력 척도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 캐나다 산불 연기 미 북동부 장악, 뉴욕시 대기 오염 세계 최악

(1면에서 계속)

한편, 피츠버그의 대기 질은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화요일에는 노인, 어린이,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같은 민감한 집단의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일에는 온건한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 도시는 화요일 내내 대기질 경보를 받았다.

뉴욕주 대부분과 매사추세츠주 전체, 코네티컷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전체를 포함해 뉴욕과 뉴잉글랜드 일부

지역도 화요일 대기질 경보를 유지했다. 볼티모어, 보스턴, 하트퍼드, 프로비던스, 버몬트주 몬트펠리어와 같은 도시는 화요일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건강에 해로운 공기질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랭전선은 앞으로 며칠 동안 남쪽으로 이동하여 일주일 내내 연기를 남쪽과 동쪽으로 더 멀리 밀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는 산불이 발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덥고 건조한 조건을 악화시켰다. 과학자들은 최근 미국 서

부와 캐나다에서 산불로 그을린 수백만 에이커(대략 사우스 캐롤라이나 크기의 지역)가 세계 최대의 화석 연료 및 시멘트 회사의 탄소 오염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그들이 타면 연기는 수천 마일을 하류로 이동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IQAir North America의 CEO인 Glory Dolphin Hammes는 이전에 CNN에 “산불은 지구 온난화 문제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조건을 만들고 있는 기후 변화와 매우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 시론

## 문제는 맥도널드가 아니었네...



최해근 목사 (용고메리교회)

테네시주 내슈빌에 사는 케빈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방식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했습니다. 그 방법은 100일 동안 매일 맥도널드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만 먹는 것입니다. 현재 57세인 케빈은 지난 2월에 자신의 체중이 238파운드(108kg)인 과체중 상태로 체중감량에 도전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맥도널드 음식만 먹은 결과 놀랍게도 그의 체중은 58.5 파운드가 줄었습니다.

하루 3기씩 100일 동안 매장은 들리지 않고 차 안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자신이 주문한 음식은 절반만 먹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 버리또 1개, 해시브라운 반 개 혹은 머핀 반 개를 먹고 나머지는 두었다가 점심 때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때에는 빅맥과 프렌치프라이 그리고 애플파이를 주문하여 받은 먹고 절반은 그 다음 날 아침에 먹는 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체중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모두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무려 65 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남편 케빈이 맥도널드 다이어트를 한 지 40일 정도 지났을 때 옆에서 체중의 변화를 지켜보던 아내도 맥도널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65일이 지났을 때 아내 역시 체중이 18파운드 줄어 들었습니다.

케빈 외에도 맥도널드 음식만 먹으면서 체중감량을 시도하여 성공한 사례들은 많습니다. 2014년 오하이오주의 고등학교 현직 과학교사가 FDA 안내지침에 따라 하루 2,000칼로리에 맞춰 식사를 한 결과 90일간 35파운드 정도를 감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 영양사들의 충고는 체중감량은 가능하지만, 몸에 필수적인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되면 인간의 뇌가 그 필수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공복감을 계속적으로 보내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음식을 취하게 됨으로 감량된 체중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문제는 맥도널드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식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에 빠지는 것 중의 하나가 교회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웅장한 공간과 그 속에서 이뤄지는 수백 명으로 구성된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그런 예배는 결코 지나가시거나 무시할 수 없으며 그래서 예배자들은 자신이 드린 예배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기도제목이 저절로 응답받을 것 같은 생각이 빠집니다. 반면에 변변한 피아노도 오르간도 음향시스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 천장의 뜰새로는 하늘마저 등성등성 보이는 그런 초라한 곳에서의 예배는 대수롭지 않게 보려는 경향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맥도널드가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신앙인들의 아름다움을 세워주는 것도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진실성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긴다면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며, 살렘.

hankschoi@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진욱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 오전 05:45</p> <p>Tel: (718)357-9199        12-25 Clinton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2-2584, www.ikcb.org        14 Gres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갯세마미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p> <p>Tel: (516)520-2004, www.gonyk.com        2408 59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 (Fax: 경음), (917)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양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p> <p>Tel: (516)387-9940, 9942EM, www.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영아예배: 오전 9: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00</p> <p>Tel: (718)706-0100, www.nyo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p>	<h4>뉴욕효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광선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 (화-토)</p> <p>Tel: (718)762-2525, 5756, www.hyo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늘기쁜교회</h4> <p>담임목사: 김홍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p> <p>Tel: (718)359-0991, www.joyfulchurch.org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p>	<h4>베이스айд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아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가나안예배: 오후 6:00        수요가나안예배: 오후 6:00        새 생애 예배: 오전 5:45        견고안락발사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229-2858, www.nybasid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새벽별주님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p>	<h4>은누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준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p> <p>Tel: (845) 359-1458, http://a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a.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 금, 토, 일)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셋째, 넷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둘째(목) 오후 7:30</p> <p>Tel: (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ie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52)323-3507-4111, hanikr@hanmail.net        Rua Joaquim Fiza, 281 Cantucci S. Paulo Cep 01528-010</p>
<h4>아르헨티나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p> <p>Tel &amp;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안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n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 (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하누엘 신학대학 교수</p> <p>Tel: (52)33-3507-4111, hani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 신학교 졸업 시즌에 강력하게 제안한다!

미국의 각급 학교의 졸업시즌이 한창이다. 북미주에 산재한 한인 신학교들도 역시 그동안 정성껏 양성해 온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보람된 시즌을 맞고 있다. 신학교의 졸업생은 2년 후에는 대부분이 목사로 임직을 받아 목양 최전선에서 사역해야 할 인재들이기에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라! 이제 곧 한 사람 신학교 졸업생에게 맡겨질 영적인 사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막중한 것인가! 신학교 졸업

생 한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한 교회가 탄생하는 셈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신학교 지망생들이 급감하고 있다는 슬픈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신학생 전도사들이 이력서를 보낸 후에 사역할 기회가 되면 자기를 불러 달라는 청원서가 서너 명씩 쌓였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날은 지금 몇 년째 교육 전도사(신학생) 한 사람을 구하기가 여간 어렵게 되

었다. 미국 신학교 자체가 신학생들이 급감하면서 재정적인 곤란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캠퍼스들을 매각 처분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정된 교단의 신학교 입학문이 얼마나 좁은 문이었는지... 재수는 다반사였고 심지어는 4수를 해야 입학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겨우 미달 사태를 면할 만큼의 신학 지망생들이 급감 현상을 드러냈다

고 한다. 이런 암울한 소식이 듣고 있어버리기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만 해도 벌써 몇 해 전부터 주일학교를 지도할 신학생 전도사나 졸업생을 구하지 못한 채로 지나고 있다. 이달 말이면 또 중고등부 교육 목사가 타 교회 임지로 전출을 한다고 하는데 후임을 구할 자신이 없다. 영예권 목사도 일년 가까이 공석중이다. 공급과 수요의 부조화를 이루면서 지역 교회들이 차세대 교육 목회자들을 구하는 것이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 시대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신학교 지망생이 소수화되는 추세로 봐서 더 이상 신학생 교육 전도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각 지교회 담임 목회자들에게 두 가지 주일학교 지도자 양성과 목사 후보생 발굴에 관한 추진책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다.

첫째는 더 이상 주일학교 교육 전도사를 신학생 중에서 찾지 말고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양육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주일학교를 지도했던 수많은 신학생 교육 전도사들을 분석해 보면 그들은 대부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해 본 경험도 없이 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들이 대다수였다. 게다가 자녀

를 양육해 보지도 못한 신학교이 대다수였다. 그들은 신분이 신학생이라서 지역 교회들이 전도사님! 호칭으로 불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교회 교육의 일선 경험이 거의 없는 전도사들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이나마도 찾지도, 구할 수도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현재 주일학교에서 헌신하고 봉사는 베테랑 교사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저들은 10년~20년씩 주일학교를 섬겨온 청지기들이다. 그들 중에서 바람직한 은사와 리더 자질을 겸비한 일군들을 발굴해서 주일학교 설교자와 리더십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사역자로, 간사(Step)로 세우기를 제안하고 싶다. 이런 리더들은 대부분이 자녀를 직접 출산했고 양육해 온 강력한 책임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모들이다. 이런 자질 위에 기본적인 성경 해석학, 설교학, 리더십과 영성 훈련만 가미하면 아주 탁월한 주일학교 목회자로 양육할 수 있다. 각 지 교회 담임목사가 일반 교우들 목양도 귀하지만 이제는 직접 주일학교 지도자 양육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이런 지도자들을 현직 신학교에 온라인 학습이라도 한 과목씩이라도 훈련 받도록 교회가 배려를 해서 일군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 제안은 모든 신학교 지망생들이 사라지는 현상을 안타깝게만 여기지 말고 이제라도 모든 지역 교회들이 2~3년에 한 명씩이라도 목사 후보생을 발굴 양육해서 신학교에 위탁 교육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다. 총회 산하 600여 개의 지교회가 2-3년에 한 명씩만 목사 후보생을 배출한다면 매년 최소한 100명 이상의 목사 후보생을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매년 100명씩만 6년을 지속한다면 목사 후보생 고갈 상태를 금세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타결책이 있어도 결정적인 약점은 아무도, 어느 교회도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서, 거두기만 하려고 하니 마치 빈 들에서 추수하겠다는 여처구니없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신학교 졸업생이 곧 미래의 교회라면, 신학생 고갈 상태나 목사 후보생 부재 현상은 곧 미래 교회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이단 종파들의 먹잇감으로 넘어갈 것이 뻔한 사실로 와닿는데 이제라도 모든 교회가 각성하고 목사 후보생들을 양육하고 발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jykim47@gmail.com

# 푸/른/초/장

박병섭 목사  
(뉴욕선교로교회)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바알신 상을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악을 행하고 불의를 일삼다가 예루살렘 성전마저 폐쇄해 버린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25세에 왕위에 등극하여 29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유다에 대개혁을 시작하여 다윗 시대에 버금가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먼저 온 땅에 널려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선왕들이 멈추었던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왕하 18:5~8). 히스기야 왕은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으로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를 구하기 위해 회개운동을 일으켜 성전에서 친히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앗수르 군대를 대신 쳐서 185,000의 대군을 일시에 멸망시키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무서운 질병으로 죽음이 선고되는 절망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왜 병이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결과로 병이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대하 24:18-25; 26:16-21). 모든 경우를 죄와 관련시킬 수는 없지만, 히스기야의 경우는 분명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그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던 때에 기록한 글에 보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사 38:17)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병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징계하신 것임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죄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8:15-16절에 보면, 산헤립이 침입하여

온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을 때, 왕궁과 성전 곳간의 보물들과 성전 문과 기둥에 얽혀진 금까지 모두 벗겨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왕하 18:15-16). 이러한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까지 모두 바치고 항복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러한 행동을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는 치유의 약속과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왕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집을 정리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나라의 왕권을 넘겨주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상황에서 이 비극적인 메시지를 들음으로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기 대신에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뜻을 펼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상황을 바꾸어서라도 사용하십니다. 결국, 그의 간절한 기도는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여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의 가사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는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로 회개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과 동맹을 맺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어 곧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토로하는 간절한

며 내 눈이 쇠하도록..."(사 38:14) 믿음의 척도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기도에도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타는 심정이 없습니다. 애끓는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압박감 나루터에서 환도 빼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던 야곱이 가졌던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세련될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없이 어찌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기도의 애절함이 없이 어찌 상황을 뒤바꿀 수 있었습니까?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에 두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찢듯이 회개의 눈물로 무릎을 적셨습니다. 결국, 그의 간절한 기도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내가 삼 일 만에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십 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보호하리라..."

## 히스기야의 기도 - 위기에서 기도하라

### 열왕기하 20:1-6

기도는 판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특히 급식하며 드리는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총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정을 토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판도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 보니, "...히스기야가 기도하되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체면도 버리고 어린이와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사야 38: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저저귀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

그렇습니다. 앞이 캄캄한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 뿌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에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ackbspark@gmail.com

교회관(觀)

교회를 생각하는 관점이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의 내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이 교회가 평생 내가 섬길 교회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음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도 이 사람과 내가 살수도 있고 언제라도 헤어질 수도 있는 관계, 깊이 사랑하지 않고도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는 관계, 그런 관계들은 서로의 인생에 불행하다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항상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좋을 수는 없겠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은 내 운명이다, 평생 생명 바쳐 사랑할 사람이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약속을 지켜가는 삶을 사는 이들을 보면, 그 열매가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된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사랑

에 대한 관점은 이 시대만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다. 땅위의 지상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 좋거든 마디 마디에 간증의 역사와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본다. 모든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참되고 바르게 세워지는 과정들에는 반드시 몸을 드려 교회를 사랑했던 아름다운 성도들의 간증의 역사가 부지가수로 존재함을 본다.

교회는 회복과 축복의 소망

어떤 장로님의 간증이다. 이민 생활의 갈등 때문에 아내 되시는 분이 가출을 했다고 한다. 남편 되는 분은 모든 사업과 일들을 다 제쳐놓고, 원통함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내를 찾기 위해 온 미주의 도시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중부의 어느 도시를 찾아갔는데, 주일이 되어 예배처소를 찾다가 초막같이 허

회복은 교회에서 예배부터

예전, 한국 교회에는 이러한 간증들이 무수히 많았다. 서울 여의도에 순복음 교회가 지어지기 전, 그 시작은 시대문의 천막 교회였다. 그 천막에서 하루 여섯 번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성도들 대부분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사업에 실패한 실업자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 외치는 조용기 목사도 역시나 폐병 환자였다. 폐병으로 인해 설교 중에 피를 토하면서 '되지도 않은 그런 일 다 내려놓고 예배부터 드리라'고 피를 토하듯이 소리쳤다고 한다. 실제, 병으로 인해 피를 쏟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 설교 말씀에 사람들이 무리와 같이 몰려들었는데, 대부분이 삶에서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있던 중에도 은혜받아 헌금하며, 마치 성막을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릴 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

기도의 손을 모으는데 손에 반지가 잡히더라는 것이다. 그때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들고 온 것 뭐 하러 다시 들고 가나?'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풀어서 주님께 내어 드렸다고 한다. 또 집에 금수저 은수저가 있는데, '그냥두면 녹쓰는데 교회 기동하나 세우지?' 그런 음성도 들리더라는 것이다. 금수저 은수저가 녹슬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나 워낙 은혜가 넘치다 보니, 땅에 쌓아둔 재물에는 좀과 동물이 해한다는 말을 성령께서 불붙게 하심으로 그런 결단도 생기게 된 것이다.

어느 교회가 건축 문제를 두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성도 중에 교회 근처에 땅을 가진 믿음 좋은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자꾸만 차들이 땅에 들어와서 지나 밟고 가길래 화가 조금 났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화가 오를 때,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미국에 와서 평신도로 사업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소명을 받고 이번에 목회학 석사 과정의 3년 신학공부를 마치고 졸업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목사가 될 것인데 가는 길이 어려움이 많은 길인데 특히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 LA에서 Hwang 전도사가

“가나 혼인 잔치처럼 맹물같은 인간을 극상품 포도주와 같이 가치있는 인간으로 변화”

**A:** 먼저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사명자의 길은 거칠고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복된 길이요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목회 리더십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로 어려운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사람을 다루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는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온갖 죄악된 요소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반역과 시기과 질투와 불순종과 교만과 폭력과 음모와 무례함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런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목회 사역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가나 혼인 잔치처럼 맹물같은 인간을 극상품 포도주와 같이 가치있는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역입니다. “Mission impossible” 하게 보이는 사역이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피긴슨 이란 목사는 목회 소명이란 책에서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2가지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성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온갖 죄와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여 거룩한 인격을 유지하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눈으로 보는 영상시대에기에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며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은 보는 것 즉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하고 늘 자신을 영적 불결에서 깨끗케 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인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든 면에 깨끗해야 합니다. 돈문제에 깨끗하고 말에 신용이 있어야 하고 여성 문제에도 일절 깨끗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 빌리그래함은 자기 차 오른쪽에 아내 말고 딱 여자를 태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늘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프랜시스는 백성의 통치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청결한 눈을 유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말씀연구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말씀묵상과 연구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알파한 연구는 알파한 설교밖에 안 나옵니다. 버가모교회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준다”고 했는데 성도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먹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연구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두 기독교 지도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가가와 도요이쵸이고 한 사람은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동경에서 살았는데 자신의 6평짜리 다다미방에 청년들을 모아 놓고 수 십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다른 이들에게 강의나 일을 부탁받을 때는 나는 성경공부를 해서 젊은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의나 일로 내 시간을 빼앗지 말아주시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우찌무라 간조는 27가지 일 즉 성경을 연구하는 일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은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기독교 정신을 가진 정치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를 많이 키워내고 일본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옹고 그릇에 대해 목소리 예배의 온전함에서 시작되며 깊도 낼 수 있는 것이다. 교회의 모습에 초라하고 연약해도 믿음의 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배들의 그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기에,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오늘날 언제 어디서나 손쉬운 정보습득 능력으로 신앙의 지식은 많아졌지만,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신앙들이 많아졌다. 세련된 것을 찾고 구하지만, 그럴수록 신앙은 세속적이며 천박해짐을 기억해야한다.

교회중심의 영성회복

기독교 신앙의 영성은 교회와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교회중심, 신앙과 삶

-교회, 영성, 회복과 축복-

하고 섬기는 내 교회는 바로 이 교회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복과 열매가 있음을 보는 것이다. 작은 허물과 연약함에 결코 교회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교회에 대한 관점은 그의 신앙생활 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된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끼리는 뭔가 모르게 신앙의 좋은 냄새가 있음을 본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분들을 만나면 은혜가 된다. 혼자 성경 읽는 것이 더 마음에 힘이 된다는 분들을 보면 절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느낀다.

교회는 참된 영적구원

성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신령한 것, 영적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또 많이 간증한다. 이 땅의 일이 아닌 조금은 다른 차원의 세상 이야기로 들려진다. 그럴 때 마다 영적유익을 위해 강조하는 것이 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삶 속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그 신앙이 현실계와 물질계속에 구원될 때 의미가 있어진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영적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는 반드시 육신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땅 어디에서 그런 신앙의 영적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삶의 다양한 타전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이 땅 물질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처치, AI 목사들을 유행처럼 말하는 시대에는 의도적 선명성을 더욱 강조하면서까지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와 더불어 눈에 보이는 장소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장소로서의 교회

름한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를 기다리시던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 분노와 원통함, 억울함과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은 만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예배시간에 아내를 찾으려고 들고 온 돈과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교회앞에 드리게 되었다고 한다. 허를 찌르던 교회는 그 돈이 씨앗이 되어, 새롭게 교회를 짓고 완공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훗날 본인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 한번 더 교회를 건축할공까지 했다고 한다. 끝이 좋은 인생, 시시한 복수극으로 끝날 인생이 주님안에서, 교회안에서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된 것이다.

삶의 원통함과 분노와 상처들도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오고, 그곳에서 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마음의 모든 어두운 장막들은 물러가고 마침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본다. 주의 전에서 예배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 마음의 어둠이 물러갈만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므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된다. 회복이며, 축복이다.

회복을 원하는가? 주의 몸된 교회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로 몸을 움직여 나아가야 한다. 주님의 교회로 나아오지 않고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견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의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주의 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회복과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해 그만 가져오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자원하여 드리면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뭐가 남아서 드렸겠는가? 남아서, 남으니까 드린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렵듯처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전부를 드린 것이었다. 그러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들 천막교회 나아왔던 이들이, 믿음으로 영적인 힘을 내고, 하나님앞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기업가들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저들이 순복음 실업인회를 만들어 목사님의 목회와 선교사역을 뒷받침하며,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은금 패물을 가지고 왔지만, 광야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부족해서 넉넉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저들이 지나질 정도로 자원하여 드렸을 때, 저들의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푸셨다. 비록 가진 것이 없는 광야의 길이었지만, 저들의 모든 행로를 친히 책임져 주신 것이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친히 인간이 만든 그 천막 속에 거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로, 열방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가장 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 교회앞에 헌신

이런 역사는 어느 특정한 민족과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강남의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를 짓기 위해 성회를 하는데, 은혜를 받고

이다. '자네 땅을 차가 자꾸 밟고 지나가는데, 거기 교회 지으면 못 밟을텐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다. 그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헌신한 그 흔적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고는 마침내 은혜의 대를 이어가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방주가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 믿음과 헌신

오늘날, 가급적 교회를 간소화시키고, 주일 성수의 탈 자유화를 통해서까지도 교회를 선전하는 시대가 되었다. 예배와 신앙의 삶을 Non-Stop Service처럼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치우도록 선전한다. 이러한 초특급 서비스 시대에 교회건축과 관련된 위의 간증들을 말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 하물며 교회의 지도자들조차 대부분 '시대를 못 읽는 꼴통(?)목사'의 생각으로 치부할 것 같다.

적당히 교회와 목사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한마디를 하면 꽤 괜찮은 교회와 목사로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시대에 무슨 교회 짓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자신의 일보다는 교회를 더 우선하며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지금 이 세대가 이만큼 자라왔고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잊으면 배운답덕한 것 아니겠는가? 목회라는 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마지막 최종결정권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못났다고 하여도, 그 부모없이 세상이 생명의 빛을 볼 수도 없었고, 스스로 지저귀 같아가며 자라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가운데서 신앙의 기초를 배웠기에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함께 보는 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자녀 휴가를 다녀오는 가족들도 상당히 많다. 대한민국의 캠핑인구는 2010년 초반부터 꾸준히 늘어났다

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인구와 인기가 모든 세대에 걸쳐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쿼린틴으로 인한 공간의 제한은 모든 사람에게 캠핑의 욕구를 늘리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내 물건만으로 온전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여행이라는 생각에 캠핑인구는 더욱 늘어났고 그 사이 백신접종과 예방법이 발달되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여행에 대한 규제도 많이 풀렸지만 캠핑의 열기는 그대로이다. 무엇이든 클릭과 터치 한번으로 해결되는 빠르고 편리한 것을 좋아하는 디지털시대에 캠핑은 무엇 하나 내 손으로 직접 하지 않

으면 되지 않는 불편한 아날로그시대의 여행방식인데 말이다.

캠핑아웃도어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 기준 캠핑산업현황 통계조사에 의하면 국내 캠핑 이용자들이 캠핑을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휴식을 위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 시 주요활동으로는 모닥불놀이와 별보기, 바비큐, 휴식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조사를 통한 캠핑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 놀이와 별을 보는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 기사를 읽으며 나의 경험을 떠올리며 웃음이 나왔다. 우리가

족도 자주는 아니지만 캠핑을 다닌다. 처음 캠핑을 갔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모닥불을 피어 머시멜로우를 구워 먹고 밤하늘 가득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좋아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흐린 날이 아니라면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올려보면 보이는 수많은 별을 보며 우와~우와~ 소리 지르며 감동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는 없다.

다가오는 여름! 해외나 타주의 유명한 여행지도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풀베레 소리 들으며 함께 별을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별 하나'가 되어주길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사랑하는 별 하나

이성선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는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쫓아 될 수 있을까.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이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화안히 안기어놓을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며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많은 눈빛으로 나를 찾아올까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songje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6년 만에 유네스코 복귀... 中 "밀린 회비 댈리 내"

중국이 6년 만에 유네스코(UNESCO)로 복귀하는 미국을 향해 "다년간 밀린 회비를 최대한 빠르게 전액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유네스코 복귀에 대해 "국제기구 가입을 공원 산책 정도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책임 있는 국가로서 감당해야 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오드리 아줄레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12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미국이 오는 7월 재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7년 10월에 유네스코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탈퇴했다. 유네스코가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부정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체제로 바뀐 미국은 6년 만에 유네스코 복귀를 예고했다. 유네스코 재가입 과정에서 납부를 유보한 분담금(회비)을 한꺼번에 부담할 수 있다. AP통신은 미국의 미납 분담금 규모를 6억 달러(약 7600억원)로 추산했다.

日정부 첫 우주안보구상...중러 대항 방위목적, 군사능력 확대어나

일본이 우주안보 정책의 첫 지침인 '우주안보구상'을 공개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군비 경쟁에 대항한다는 취지지만 군사 능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1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우주개발전략본부 회의를 열고 우주안보구상을 처음으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주안보구상은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가 개정한 외교·안보 기본지침인 국가안보전략에서 우주·사이버 능력을 향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10년 동안 방위 목적의 우주 이용 확대를 위한 지침이 된다. 기

시다 후미오 총리는 "우주 공간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용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우주안보구상에서 우주 공간에서의 위기감을 표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미국과 유럽의 민간위성 데이터가 군사작전에 이용됐으며 "우주 이용이 군사적 우위성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수집위성을 대폭 늘리고 위성 공격능력 개발을 추진하는 나라도 있다"며 중국을 예들려 겨냥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염두에 둔 탐지·추적 등 기술개발을 미국과 연계해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미국·영국·호주·캐나다의 '연합우주운용센터' 참여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센터는 군사위성이나 상업위성에 대한 방해나 공격 등을 함께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방위성과 자위대가 다른 국가의 지휘통제와 정보통신을 방해하는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우주안보구상에 명시했다.

교도통신은 "우주의 군사 이용을 활발히 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할 목적이지만 군민 일체화를 가속하는 정부 방침에 야당과 학계에서는 우려도 나올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 열풍'에 엘리슨 오라클 회장, 빌 게이츠 제치고 '세계 4위 부자'

인공지능(AI) 열풍이 뜨거워 가운데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주가가 급등하면서 창업자 래리 엘리슨(78) 회장이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4위 부자가 됐다.



12일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BBI)에 따르면 엘리슨 회장이 순 자산 1298억 달러(167조원)를 기록하며 게이츠의 순 자산 1291억 달러를 제쳤다. 블룸버그통신은 "엘리슨 회장의 순 자산이 게이츠를 뛰어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BBI 순위가 5위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오라클의 주가 상승세 등에 힘입어 엘리슨 회장의 순 자산은 올해 38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다. 그의 재산은 대부분 오라클 주식이며 110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지분도 포함돼 있다. 반면 게이츠는 여러 비영리 단체 기부 등으로 올해 재산이 199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날 오라클 주가는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기술주의 동반 상승세에 힘입어 6%

올라 사상 최고치인 116.43달러를 기록했다. 오라클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2% 상승했다. 오라클은 이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이전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138억4000만 달러(약 17조77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났다고 밝혔다.

나토, 1만명 동원 방공훈련...러 겨냥 '역지력' 과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12일(현지시간)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방공훈련에 돌입했다.



우크라이나의 대만적 작전에 맞춰 러시아에 단결된 역지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13일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토의 연합 군사훈련 '에어 디펜드 23'이 전날 유럽 영공에서 시작했다. 독일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최근에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를 포함해 25개국과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스웨덴이 참여하고 일본이 참관국(옵서버)으로 함께한다. 훈련은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되며, 군용기 250여대와 장병 1만명이 동원된다. 미군은 110대 이상의 비행기와 주 방위군 소속 군인 수천명을 파견했다. 나토는 각국 항공기 사이 원활한 통신이 이뤄지는 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독일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얼마나 빠르게 목표 지역에 도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을 이끄는 영국 케르르르르 독일 루프트바페(공군) 참모총장은 첫날 훈련을 마친 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나토의 단결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마르 삼각동맹'을 구성하는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3개국 정상은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대만적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무기와 탄약, 무장차량, 보급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지원을 수일, 수주에 걸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영상 연설에서 "전투는 치열하지만 우리는 전진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중부 크리비리흐에 13일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벌였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가 이 지역 아파트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트럼프 법원 출두 앞두고 극우단체 집결 계

획...美 긴장 고조

기밀문건 불법반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3일 연방법원 출두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저항하라"고 촉구했고, 이에 맞춰 극우 극단주의 단체 등도 집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일부 친(親)트럼프 추종자들은 기소를 비난하며 총기 사용 위협까지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선거 전략이었던 로저 스톤과의 인터뷰에서 "기소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저항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기소에 대한 항의를 촉구한 것이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법원에 출두하는) 화요일 마이애미에서 만나자"고 적었고, 한 사용자는 "미국 국민에 대한 전쟁 선언이다. 워싱턴DC에서 부패를 불태울 때"라고 반응했다.

미 당국은 친 트럼프 단체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관측되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법 집행 당국은 잠재적 혼란에 대비해 경찰 휴가를 금지했고, 사복 경찰에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제복을 입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경찰 내부 문서에는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 마이애미 지부가 주최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회가 언급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물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내셔널 도얼' 리조트 인근에도 지지자 집회 예정됐다. 친 트럼프 인종주의 도발적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측 인사인 카리 레이크 전 폭스뉴스 앵커는 조지아 주 공화당 전 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잡으려면 나와 7500만명의 미국인을 거쳐야 한다"며 "우리 대부분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전미총기협회(NRA) 카드 소지자"라고 말했다. 레이크는 또 이번 기소를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했다. 폭력 위협을 암시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 이후 또다시 지지 결집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CBS방송이 여론조사업체 유거브와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공화당 대선주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23% 지지를 얻어 격차가 38%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지난날 조사에서 두 사람은 각각 58%, 22% 지지를 받았다.

이번 기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견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그의 지지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40%는 "더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고, 56%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NLL 탈북 가족의 증언..

(2면에서 계속)

한국과 인접한 북한 해안가 주변에는 한국산 물품들이 조류를 타고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엔 비닐이나 플라스틱, 고무,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료들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해안가 주민들은 이 한국산 물품들을 수거해 "매일 자전거로 7-8km를 이동해 재활용 공장에 넘기는 실정"이라고 김 씨 형제 가족들은 전했다.

한류 유입에 처벌 강화

북한은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나 노래가 빠르게 확산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류 유입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해 여름 20대 초반 남성이 한국 영화와 노래들을 USB에 저장하고 이를 시청, 유포하던 중 불법처럼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공개 총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지난 2020년 12월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 문화와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과 요소를 뿌리뽑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보던 주민이 처형됐다는 주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통일부가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양강도에

서는 한 남성이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유포하다 불법처럼 공개 총살됐고,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지인들에게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공유한 사람이 노동교화형 4년에 처했다.

'인육 취식 소문 들었다'

'최근 북한에서 인육 취식 소문이 돌고 있다'는 증언과 관련, 이는 '장기간 코로나 봉쇄 조치'를 단행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BBC 코리아에 "지난 1995년 '고난의 행군' 당시 약 4년 동안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당시에도 사람이 굶주리고 배고프면 뭇지 먹는

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최근 그런 소문이 다시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이어 "북한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중국과의 물자 거래를 통해 최소한의 식량 공급을 해왔지만 올해까지 3년에 걸친 장기간 코로나 봉쇄 조치로 식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내부적인 코로나 봉쇄 조치로 자체적인 식량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며 따라 북한의 식량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씨 형제 가족들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올해 초 북한의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식량난이 극심해졌다"고도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달러 사용은 공식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북한 장마당에서는 북한 화

폐보다 달러가 더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9년 당국의 화폐개혁 실패 후, 원화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사라지면서 시장에서 달러와 위안화 거래가 견잡을 수 없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북한 당국도 주민들의 달러 사용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1달러 환율은 평양 기준 8000원 대를 기록하고 있고, 쌀값은 1kg에 5700원에 달한다.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5000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한 달 월급으로 쌀 1kg도 사지 못하는 셈이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굶주린 일부 북한 주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인육을 동물 고기로 속여 판다는 등의 소문은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한 상태일 때 더

져 나오곤 했다. 이러한 소문은 지난 2011년 6월 공개된 북한 인민보안부의 문건에서도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북한 경비원이 동료의 인육을 먹고, 나머지는 양고기로 속여 팔던 중 적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출신으로 국정원 산하 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김광진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몇백만 명이 굶어 죽는 것으로 알려진 1996년 고난의 행군 시기, 평양시 민경대구역 장마당에서 한 시민이 인육을 내다 팔다가 당국에 붙잡혀 그 사람은 물론 관련 친인척까지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지금 또다시 일부 지역에서 인육 취식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식량난이 그만큼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71. 이정두

이정두는 1864년 1월 22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결혼한 후 '상수구박'(Sang Soo Koo Pak)에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다. 그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40세가 되던 1904년 5월 8일에 같은 나이의 부인과 함께 8살 된 아들 종철과 3살 된 아들 종환을 데리고 이민선 시베리아호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가 하와이로 올 때는 자기 이름을 Ye Chung Doo로 하였는데 하와이로 이주한 후 Lee Chung Doo로 표기했다. 하와이 이주 당시에는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 하와이 힐로 한인감리교회

이정두가 하와이에 온 후 농장 노동자로 살았을 것인데 언제 힐로로 이주한 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920년 이전에 이주하였을 것이고, 힐로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다고 본다. 1919년에는 김이제 목사가 본 교회에 파송받았다.

이정두는 하와이로 이주한 지 15년이 되고, 56세가 되던 1920년 2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제15차 하와이 연회에서 하와이섬 힐로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의 이름이 Chung Do Lee로 표기된 것은 오타일 것이다. 그해 파송된 목사는 이관목이었고, 그는 힐로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하와이주 한인감리교회까지 맡은 순회 목사였으며, 장로 목사 곧 정회원이 된 지 5년이 된 목사였다. 그리고 그해 파송된 전도사는 없었고, 파송된 권사는 그뿐이었다. 그러므로 이관목 목사가 순회 목사였으므로 이정두가 권사이긴 했지만, 힐로 한인감리교회 사역의 많은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파송된 그달에 보고된 두 한인교회의 현황은 아래와 같았

다. 세례 교인 2명, 어린이 세례 교인 3명, 입교 교인 4명, 학습 교인 7명이었다. 주일 학교에는 7명의 교사와 직원이 있었고 등록된 학생은 42명이었다. 웨워스 청년회에는 고등부가 10명, 중등부가 9명이 등록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 헌금으로 하와이 한인감리교회는 5달러를 하였고, 힐로 한인감리교회는 64달러를 헌금하였다. 힐로 한인감리교회는 1,900달러에 해당하는 예배당이 있었고, 건물 유지비로 23달러를 썼다. 위의 교인 현황에서 따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힐로 한인감리교회 교인 수가 더 많았을 것이다.

이후 1927년까지 이정두의 이름이 하와이 선교연회록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1927년까지 계속 권사로 파송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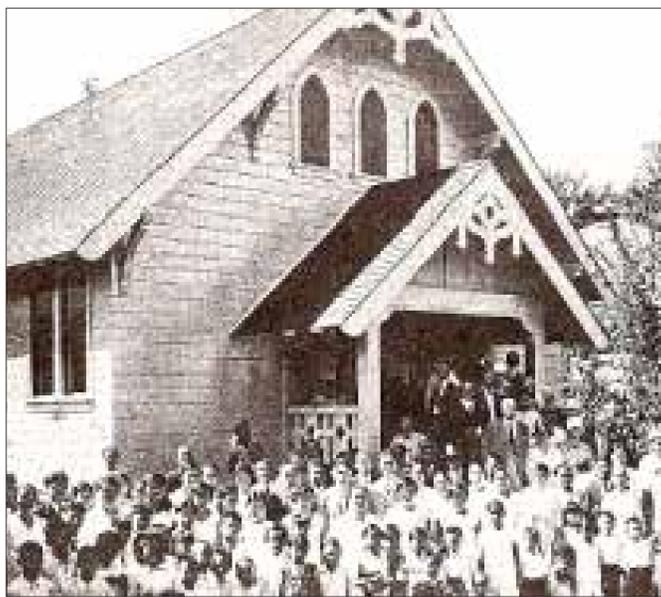
1928년 2월의 제23차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이정두는 심상헌과 함께 힐로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 이관목 목사의 지도하에 사역하였다. 그런데 1928년 2월의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하와이 선교연회의 '내지선교/교회확장부의 부장인 일본인 T. 고무로 목사는 하와이섬 힐로에 거주하는 힐로 한인감리교회가 신축 예배당 건축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고했는데, 신축 예배당이 필요하기로는 가와이섬의 기가하 필립 교회와 같은 형편이었다. 그런데 힐로 한인감리교회는 예배당과 사택을 그해에 건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교회 예배당 건물과 사택 타는 24,000달러에 해당했고, 사택과 사택 터가 8,500달러에 해당했다.

1928년 2월 보고와 이정두가 1년 동안 사역한 1929년 2월의 보고를 비교할 때 힐로 한인감리교회의 형편은 아래와 같았다. 예배를 드린 곳은 세 곳으로 같았고, 한 명이 줄어들어 2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동

일하게 없었고, 어린이 세례 교인은 2명이 늘어 19명이었으며, 입교 교인은 3명이 늘어 78명, 학습 교인이 64명이 줄어들어 19명이었는데 이 중 18명이 지난 1년 동안에 학습을 받았다. 그런데 힐로에 거주하지 않은 교인이 3명이 늘어 15명이었고, 거주하는 교인은 27명이 늘어 101명이었다. 지난 해와는 달리 교인 2명이 별세했다. 주일 학교는 한 곳이 줄어들어 세 곳에서 운영되었고, 동일하게 19명의 직원과 교사가 있었으며, 등록된 학생은 20명이 늘어 320명이었고, 매주 평균 출석한 자는 10명이 늘어 290명이었고, 주일 학교를 위해 123달러가 늘어 310달러를 후원했다. 웨워스 고등부 학생은 2명이 줄어들어 53명이었지만, 웨워스 중등부 학생은 하나도 없었는데 26명이 되었다.

2년에 걸쳐 하와이 연회가 1년에 본 교회에 240달러를 후원하였다. 교회 비용으로 17달러가 적은 180달러를 사용했으며, 세계봉사헌금으로 동일하게 150달러를 헌금했고, 작년에 없었던 240달러를 선교사 보조회에 헌금했다.

이정두는 김봉서와 심상헌과 함께 1929년 3월에 개최한 하와이 선교연회 제24차 회의에서 힐로 감리교회 전도사로 재차 파송을 받았다. 그해 힐로 지방 순회 목사는 작년에 이어 이관목이었다. 1929년 2월 보고와 이정두가 1년 동안 사역한 1930년 2월의 보고를 비교할 때 힐로 한인감리교회의 형편은 아래와 같았다. 예배를 드린 곳은 세 곳으로 같았고, 한 명이 늘어 전도사가 3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동일하게 없었고, 어린이 세례



1928년에 신축한 힐로 한인감리교회

교인은 5명이 줄어 14명이었으며, 입교 교인은 12명이 늘어 90명이었고, 학습 교인이 75명이 늘어 94명이었는데 이 중 31명이 지난 1년 동안에 학습을 받았다. 그런데 힐로에 거주하는 교인은 24명이 줄어 76명이었다. 주일 학교는 1곳이 줄어 2곳에서 운영되었고, 10명이 줄어 9명의 직원과 교사가 있었으며, 등록된 학생은 135명이 줄어 185명이었고, 매주 평균 출석한 자는 165명이 줄어 125명이었고, 주일학교를 위해 258달러가 줄어들어 258달러를 후원했다. 웨워스 고등부 학생은 26명이 줄어들어 27명이었지만, 웨워스 중등부 학생은 12명이 줄어들어 14명이 되었다.

2년에 걸쳐 하와이 연회가 1년에 본 교회에 240달러를 후원하였다. 교회 비용으로 60달러가 적은 180달러를 사용했으며, 세계봉사헌금으로 동일하게 150달러를 헌금했고, 사택 임대료로 270달러를 지불했고, 연금과 구제비로 11달러를 지급했고, 선교사 보조비로 510달러를 헌금했다.

1930년 2월에 모인 제25차 하와이 연회에 보고된 힐로 한인감리교회 현황에 전도사가 3명이 있었다고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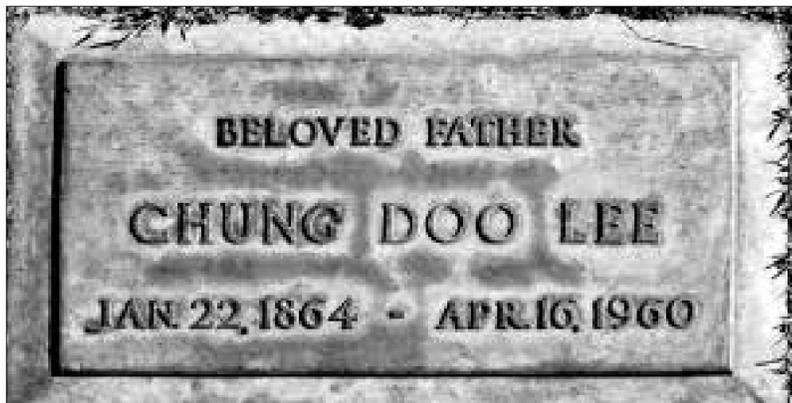
어 있지만 이정두의 이름이 적시되지 않아 그가 전도사직을 계속했는지는 알 수 없다. 1930년이면 그가 66세이므로 전도사로 사역하기에는 나이가 많기도 하다. 그런데 1931년 이후에도 3명의 전도사가 파송되었지만, 그의 이름이 없다. 그는 1920년 이후 1929년까지 9년간 권사와 전도사로 사역한 것으로 보인다.

####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구두제조업에 관여하면서 이정두는 힐로에서 호놀룰루로 이주한 것 같다. 호놀룰루에 이주한 후 그가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하였을 것이다. 본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 한인연합감리교회다.

이정두는 수십 년을 호놀룰루에서 구두제조업을 열고 종업원을 두고 관리하면서 생활했다. 그는 1960년 4월 16일에 9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아후섬의 호놀룰루에 있는 누아누 기념공원에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p><b>감사한인교회</b></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 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성순복음교회</b></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30(월-토)</p> <p>telgusa@ehoo.com / www.lbcg.com Tel: (323) 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남가주든든교회</b></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714)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b>남가주사랑의교회</b></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흥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 719-2244, www.dkcc.org 15411 W.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b>디아스포라선교회</b></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하여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b>미주양곡교회</b></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310)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례기도회(월-토): 오전 6:00</p> <p>Tel: (213) 381-2202, www.mpcs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b>복음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626)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b>베델한인교회</b></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주일학교: 오후 1:30(수-금), 오후 7:30 일일예배: 오전 9:15, 11:30</p> <p>Tel: (949) 854-4010 / bible@b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b>세계소망교회</b></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세계선교회</b></p> <p>담임목사: 김장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00(월-토)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827 / www.wmca.org / worldmissionchurch32@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p><b>실비치 사랑교회</b> (Seal Beach Se-Fe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p> <p>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말) Clubhouse 3 room 1(수)</p>	<p><b>열매교회</b></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b>엘피스사역원</b></p>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p> <p>상담사역: (월-금) 오전 9:45(분당)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관심도 여성 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세미나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b>은혜한인교회</b></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영아예배: 오후 1:30(수-금), 6:00(토) 온라인세례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p> <p>Tel: (714) 446-6202, www.graec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새문교회</b></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 오후 7:20(금)</p> <p>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b>주님의영광교회</b></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 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b>좋은마을교회</b></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14) 646-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p>	<p><b>코너스톤 교회</b></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b>토렌스조은교회</b></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분당) 세례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하늘소망교회</b></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예배: 오전 11:00 세례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예배: "어장권이 임어제네"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8)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2. 하나님을 반대하는 많은 트집들에 대한 답변

만일 세상의 논쟁자들이 자기들의 멸망 원인을 찾고 또한 간접적으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죄와 멸망을 피하기 위해 주저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지혜를 더 유익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 잘못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적 안전을 그만큼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죄와 같은 추악한 과물이 우리 안에 있고 형벌과 같은 무서운 것이 우리 위에 기다리고 있으며, 지옥과 같이 두려운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편향적인 재판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보다 무한히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 자기의 첫 번째 조상을 닮았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어 나이다"(창 3:12,13). 이 말은 은근히 하나님이 원인이셨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지성으로는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의지로서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께서 내 앞에 두신 자들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공격하도록 허용한 유혹들이 나를 삼켰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의 교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전지 하심에 절대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것은 인간의 교만한 자기 속임수의 열매이다.

[반대 1]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는 회심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답변] 두 종류의 은혜를 잘 구분하라.

하나님께서서 두 종류의 은혜를 베푸시는 데, 첫째는 회심의 은혜요, 둘째는 구원의 은혜이다. 구원의 은혜는 원하고 행하는 자에게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회심의 은혜는 그들의 원하지 않던 것을 원하게 하는 것이다. 비록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만한 가치가 없지만, 여러분의 무의지 자체이며, 이것은 여러분의 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만든다. 여러분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되, 그것을 무시하거나 반대하지 말라.

[반대 2]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답변]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 밖의 문제이지만 다음 사항을 고려하라.

의지는 자유 결정 기관이다. 그러나 의지는 타락해서 선을 행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타락이라는 슬픈 경험에 의해 우리의 의지에 선과 도덕적 자유가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형벌을 받는 것은 의지의 약함 때문이다. 잡혀서 교수형에 처해지는 모든 도둑과 살인자들이 "내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변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변명되거나 용서될 수 있겠는가?

유혹자 사탄, 기만적인 죄, 어리석은 인간

사탄은 참으로 간사한 유혹자이다. 죄는 매우 기만적이다. 타락한 인간은 매우 어리석은 피조물이다. 참으로 간사한 유혹자는 세상 사람의 대다수를

설득해서 고의적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들이 수많은 경고와 권유를 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참으로 죄는 기만적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토록 천하고 무가치한 것을 위해 영생을 버리게 할 수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피조물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내버릴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소한 것 때문에 자신을 불이나 물이나 탄광 속에 던져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혹을 받고 자신을 지옥에 던질 수 있다.

자기를 가장 나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다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을 죄짓도록 끌어들이어서 계속 죄 가운데 살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 크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멸망에 대해서도 막지 못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멸망을 막으려고 기대하는가?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심판도 자기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은혜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하는 것이다. 사람의 가장 큰 비난과 불평은 자기 자신에게 해야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경계하고 대적해야 할 가장 큰 원수는 우리의 탐욕적인 마음과 의지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란 자신의 맹목적인 지식, 부패한 지식, 왜곡된 감정, 걱정, 그리고 거친 감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창조론적 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성품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성품'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한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성품이 뭐예요? 성인용품?"

학생의 뜬금없는 질문에 교실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해프닝이었지만, 청소년들이 '성품(性品)' 하면 '성(性)'을 떠올리는 것이 적잖이 신선해서인지 요즘도 한국성품협회 소속 강사들 사이에 자주 회자됩니다.

"여러분은 '성(性)'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좋아성(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 지키기)으로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을 시작하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이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부모와 교사가 성교육을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해합니다. 성교육의 '끝'을 막연히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또는 '자녀가 사고 없이 무탈하게 어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교육이 그러하듯, 좋아성은 교육의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좋아성의 첫 단원은 '성(性)' 하면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성을 만드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성품을 발견하도록 '창조론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창조론적 감수성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창조론적 요소를 민감하게 찾고 인지하는 능력(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깊이 알면 알수록 성(性)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위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폴 브랜드(Dr. Paul Brand)와 필립 안시(Phillip Yancey)가 쓴 세계적 명저에서 외과 의사인 폴 브랜드 박사는 생명과 성(性)에 대해 이렇게 경탄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놀랄만한 것이 많지만, 우리는 생명의 탄생을 가장 놀라워해야 한다. 인간의 탄생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신비 중의 신비가 아닐 수 없다. 생각해 보라.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겨나고 드디어 한 생명이 탄생한다. 바로 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 신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반면 현대 사회에서 성(sex)이라는 개념은 이상하리만치 '생명'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욕망'이나 '폭력'에 더 가까운 양상을 보여 이것이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PGP(Preferring Gender Pronouns, 자신의 성별 대명사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와 같이 어색한 단어로 자신의 성을 표현하게 하거나, 자극적인 이유로 성을 소비하며 다음 세대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드는 장면이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네스코가 전 세계에 보급한 내용에는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라는 개념을 사용해 성이 사회적·문화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포괄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마치 편견이 없는 공정한 태도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특히 5세부터 '성별을 이유로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며, 9-12세에는 '젠더 역할의 고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부당한 관행에도 전하는 방법'을 익히게 합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일상생활 속의 성차별 요소를 감지하는 민감성으로, 성별과 역할에 대해 자신이 차별받은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문제는 이런 성인지 교육을 반응적(reactive) 교육이 아닌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강제하는 데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자발적 관심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性)' 하면 내가 받은 차별 또는 성(性)으로 인한 불균형을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젊은이가 여혐(여성혐오), 남혐(남성혐오)을 외치며 비생산적인 논쟁을 펼치는 것이 지난 20여 년의 성인지 교육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것일입니다.

좋아성은 성(性)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아닌 '창조론적 감수성'으로 창조주의 세계를 민감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 부모와 교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좋아성 교육의 '끝'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요10:10)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교육, 창조주의 좋은 성품을 배우는 좋아성 교육을 이제 힘 있게 시작합시다!

다음 세대 성품교육과 좋아성(BSE)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시니어 목회를 위한 문의/상담은 201-693-1976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6 columns and 3 rows of church listings. Each cell contains church name, pastor name,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Churches include Galbraith, Danjok, Gongmeili, Baskin, Bannell, Boston, Saemyeong, PCA, Ilkansa, Anglican, Youngsang, Killen, Winstone, Tacoma, and others.



### 묵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 하나님 사랑의 대행자

언제나 달력을 보면 5월엔 어머니의 날(Mother's Day)이 있고, 6월엔 아버지의 날(Father's Day)이 있습니다. Mother's Day에는 일 년 중 전화 통화 숫자가 제일 많은 날이라는 통계가 있고, Father's Day에는 일

년 중 콜렉트 콜(수신자 부담)이 가장 많은 날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속담에 "아버지는 자연이 선물한 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지갑 속에 cash 대신에 자녀들의 사

진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생기면 지갑 속의 현금은 탈탈 털리고 가족을 위해 끝없이 돈을 벌어야 하는 꼴 같은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생

무거운 짐을 지고 희생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사랑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땅의 아버지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속에 이런 실화가 나옵니다.

일본 북해도 삿보로에 가면 기다이찌쵸 교회에 고프스끼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딸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예쁜 외동딸이었습니다. 삿보로 시에서는 이 딸을 모르는 총각이 없었습니다. 총각들이 이 처녀를 줄줄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오미가 남자를 한 명 사귀었는데 그 총각은 삿보로 시에서 주먹으로 이름난 강패 야쿠자였습니다. 이 나오미는 그 총각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과 사모님은 강패와 결혼할 수 없다고 단념하라고 딸에게 호통쳤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왜 부모님이 그 총각을

나쁘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볼 때는 멋있고 순한 양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은 부모 몰래 동경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1년을 지내보니 생각대로 살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나오미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던 남자가 나중엔 술을 먹고 교회엔 나가지도 않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전사 같은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두들겨 맞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나오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2시가 지나고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아버지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밀어보니 삐걱거리고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나자 아버지가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보고는 꺼안고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오기를 기다렸다. 돌아올 줄 알았다. 나오미야 어서 오너라."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 주무시고 계

셨습니까?"라고 묻자 아버지는 "애야, 네가 떠난 이후로 난 네가 반드시 돌아올 줄 믿었다. 네 성격으로 보아 낮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밤에 올 줄 알고 문도 잠그지 않고 기다렸단다."

아버지의 기다리는 사람에게 감격하여 나오미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오미는 그 후 남은 생애를 고아원 사업에 헌신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고 회복시켜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songpkap@hotmail.com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학위수여자들과 교수들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예수님의 유언을 마음속에 품고 제자 만들기에 최선을"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5일(월)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김현완 교무학장 사회로 열린 예배는 안송주 학부 교무학장이 기도했으며 제임스 조 교수가 성경봉독했다. 이어

최규남 총장이 '예수님의 유언(눅 19:11-17, 2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규남 총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유언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삼위 일체 하나님과 항상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제자를 만들 수 있다. GMU는

1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중 60%넘는 자들이 전 세계에서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예수님이 다시오시기전까지 새로운 크리스천을 만드는 일에 새로운 크리스천을 만드는 일에 사역현장에서 예수님의 유언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7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힘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학위수여식은 이병구 학생학장이 졸업생 프로필을 소개했으며 성적우수상 수여식을 가졌다. 이어 박병섭 국제총회 총회장이 권면, 한기홍 이사장이 영상으로 축사했으며, 이병구 학생학장과 김영환 목사(동문회장)가 격려사를 했다. 그리고 졸업생들과 김정호 강도사가 특송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최규남 총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 학위수여식이 클레어몬트 신학교 채플에서 열렸다

## 헨리아펜젤러대학교, 제24회 학위수여식

"감리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 할 것"

헨리아펜젤러대학교(이사장 이철윤 감독, 총장 정인호 박사)는 지난 5월 27일 클레어몬트 신학교 채플에서 제24회 학위수여식을 갖고 전순희(M.A In Theological) 학생을 포함한 6명의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곽춘식 학생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수여식은 최성범 감

리사(남가주지방)의 기도, 김민영 감리사(미서남부지방)의 성경봉독, 이사장 이철윤 감독(미주주지연회)의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교수단과 졸업생들의 졸업을 위한 교독과 선언 후 임봉대 교무처장의 학위수여 청원 후 정인호 총

장의 인사말 및 김스카이(신학 전공 문학 학사)를 비롯해 전순희(신학전공 문학석사), 최영준, 고다니엘, 고적일, 유지만(목회학 석사) 등 졸업생들에 대한 학위수여 시간이 있었다. 이어 직전 이사장 임승호 목사를 비롯해 명예이사장 전명구 감독, 이철 감독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졸업생 대표 전순희 학생은 답사를 통해 "오늘 자랑스러운 헨리아펜젤러 대학에서 학위를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아펜젤러의 후손인 감리교의 목사로서 감리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경환 사무처장의 광고 후 조현영 부총장의 축도로 학위수여식을 마쳤다. 한편 졸업생들은 미국 교육부에서 승인하는 학위를 받게 되며, 기독교대학감리회 소속으로 미주주지연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꿈꾸는교회 개척감사예배에서 송희진 담임목사가 교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 꿈꾸는교회 개척감사예배

"건강한 교회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꿈꾸는교회(담임 송희진 목사) 개척감사예배가 11일(주일) 오후 4시 본 교회가 예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광장로교회(담임 김조셉 목사)에서 열렸다. 송희진 목사는 "무엇보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개척의 길을 내어주시고 문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꿈꾸는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사역하겠다.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로 1.5세와 2세대 중심의 교회로 시작하게 되었다.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록 응원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희진 목사의 사회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개척감사예배는 임혁 목사(새생명비전교회)가 대 표기도했으며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가 '겨자씨 속에 담긴 천국비밀(마 13:31-3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강준민 목사는 "교회가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교회는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한다. 작은 씨앗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 준다"며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겨자씨 한알 속에 큰 기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박준호 기자)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GIFT 상담치유연구원 사랑의 대화기술, MBTI 대화기술 세미나

대화기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GIFT 상담치유연구원이 주최한 '사랑의 대화 기술'에 관한 일일 세미나가 지난 5월 20일 개최됐다. 공인 임상 심리학 박사 리디아 전 박사가 강사로 나선 이번 세미나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 기술을 배우고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랑의 대화 기술 세미나는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의 실습을 통해 참가자들이 체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입술의 소리를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기술,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기술, 갈등 관리 스타일을 발견하고 잘 관리하는 기술, 화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기술, 관계를 강화시키는 기술 등에 대해 다루었다. 리디아 전 박사는 또 관계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강의함으로써 참가자 30여명에게 유익한 경험을 선사했다.

한편 6월 3일에는 "성격과 성격이 만나는 MBTI 대화 기술"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약 40명의 참가자들이 모여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에 대해 배우고, 나 자신과 타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기 이해와 타인과의 소통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세미나도 이론과 실습을 통한 체험적인 학습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타고난 기질, 성향, 대화 방식, 의사 결정 방식, 갈등 관리 스타일 등을 발견하고 타인과의 대화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웠다.

사랑의 대화 기술과 MBTI 대화 기술은 일상생활에서의 대화와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도구로서,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자기 성장과 개인적인 관계의 품성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정리: 박준호 기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주최 조찬기도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6월 조찬기도회 가저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삶이 되길"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3일(토) 갈보리신교회(담임 심삼은 목사)에서 417차, 2023년 6월 월례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박재만 목사(미라클포인트 교회 담임, OC교협 부회장)가 '무엇으로 사십니까?(빌 1:18-21)'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재만 목사는 "인생을 살다보면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무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라

고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길 때 문제는, 우리의 고민은 어느새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며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과 맡기는 삶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터키 지진피해자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 OC 지역사회와 교회, 목회자를 위한 기도, 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등에 이어 연합회의 하반기 사역을 위해 기도했다. 합심기도의 마무리기도는 엄재선 이사가 맡았고, 박

재만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한편 연합회는 8월 7일(월) 제4회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토너먼트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골프 참여자와 광고후원, 물품으로 후원에 참여하실 분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11월 4일(토) 교회연합성가제 장소를 애너하임에 있는 수정교회로 추진하던 중, 다수의 목회자들이 행사 장소에 우려를 보내와 장소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대회 참가 및 광고, 물품 후원문의는 총괄준비위원장 민김(213-700-7877)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2023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  
 뉴욕교협 청소년센터(대표 최호섭 목사)는 2023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를 6월 23일(금) 오후 7시, 24일(토) 오후 5시 이틀간 후러싱제일교회에서 개최한다. "All About Jesus"라는 주제 아래 맨해튼에서 Hope Midtown 교회를 섬기는 드루 현(Drew Hyun) 목사를 강사로 열릴 예정이다.

▲문의: admin@aycny.org, https://aycny.org

## 뉴욕한인지방회, 2023 청소년 연합 수련회

뉴욕한인지방회(회장 한필상 목사)는 2023 청소년 연합수련회(CHALLENGE 2023 Youth Retreat)를 6월 25일(주일) - 28일(수)에 뉴저지 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사무엘 엄 목사를 강사로 개최한다. 대상은 6~12학년 학생이며 등록비는 \$250이다.

▲문의: 안근준 목사(Pastor Keunjoon An) : 646-388-0886, keunjoonan@gmail.com

## 뉴욕한인제일교회 창립 40주년 감사예배

뉴욕한인제일교회(담임 송인규 목사)는 창립 40주년 감사예배를 6월 25일(주일) 오후 5시에 드린다. 본 감사예배 중 장로 은퇴(2인) 및 임직(2인), 제일장학금 전달(19명), 40주년 역사관 개관 및 40주년사 편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뉴욕한인제일교회 914-322-7640, sigysh@hotmail.com

## 늘기쁜교회, 엘살바도르 선교 후원 음악회

늘기쁜교회(담임 김홍석 목사)는 엘살바르 선교 후원 음악회를 6월 25일(주일) 오후 5시 본당에서 개최한다. 글로리아 성가대 & 조이풀 찬양대, 합창마을(New York Village Voices), 소프라노 이희정, 김인식/이주현이 출연한다.

▲문의: 718-359-0691



퀸즈장로교회 바자회에 참여한 러시아어 팀이 함께 사진촬영을 했다

# 퀸즈장로교회, 2023 선교 바자회

단기 선교 및 캄보디아 시엠립 뵐엘학교 학교 건축 모금을 위한 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2023년 선교 바자회를 6월 10일(토) 오전 7시부터 열었다. 매년 두번의 대 바자회를 건축 바자회, 선교 바자회로 열어온 바 있는 퀸즈장로교회는 이번 선교 바자회의 수익금을 통해 캄보디아 시엠립 뵐엘학교를 지원 할 예정이다. 김성국 목사는 "이번 바자회는 선교 바자회를 통해 그동안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바자회라는 단기 선교의 지원과 함께 이일훈, 박수영 선교사가 사역하는 캄보디아 시엠립 뵐엘학교 학교건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번 선교 바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본 바

자회는 퀸즈장로교회 중고등부, 청년부의 젊은 연령부터 고령의 선교회와 다민족 사역팀들(영어권, 중국어권, 러시아어권)이 모두 함께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동참한 바자회였다. "맛있는 바자"라는 주제와 같이 김치, 반찬, 각종 식재료와 디저트 등의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온라인 및 전화주문과 배달 서비스를 통해 제공했다.

퀸즈장로교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단기선교 사역으로 진행됐던 킴프 미션 사역을 올해에도 진행하며 더불어 케냐,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 해외현지 단기 파송 선교 사역 또한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재상 기자>

# KAPC 김성국 총회장, 이윤석 총회 준비위원장에게 감사패 증정

말씀과 기도중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로 충만했던 총회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KAPC) 제47회 정기총회가 지난 5월 23일부터 뉴욕에서 열려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총회를 마친 후 지난 10일 퀸즈장로교회에서 총회 준비위원회가 모여 총회준비위원장이 이윤석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김성국 총회장은 "지난 1년간 총회준비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 중심이 된 리더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하여 섬겨 주심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며 감사패

를 전달했다. 이윤석 목사는 "이번 총회의 주제는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엡1:23)' 였듯이, 실천사항으로 가장 집중했던 것은 예배로 충만하자는 것이었다. 총회 참가자들은 총회 역사가 이렇게 충만한 예배는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고 총회에 참가한 사모들도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위로를 받았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총회가 초점을 맞춘 대로 잘 진행됐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김재상 기자>



감사패 전달 후 총회 준비 위원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미션콘서트 후 참석자들이 다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 뉴욕수정교회 제12회 미션콘서트 "너는 소중하다"

올해 데이튼 난민선교의 주제 "귀중함"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송 목사)는 제12회 미션콘서트를 6월 11일(주일) 오후 5시에 열었다. 수정교회는 지난 6월 3~4일 전교인 선교바자회를 통해 1만7천 달러를 모금했고, 이번 미션콘서트 수익금과 함께 전역 데이튼 난민선교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올해는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여름 단기선교팀이 데이튼에 가서 어린이 여름캠프와 가정방문 사역을 통해 난민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특히 올해 데이튼 난민선교의 주제는 "귀중함"이다. 데이튼에 있는 난민 아이들은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수정교회는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또는 얼마나 잘했는지에 근거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며, 올해 선교팀이 "너는 소중하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체현하고 알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황영송 목사는 미션콘서트에서 인사를 통해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미션콘서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에 동참케 하심에 감사해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션콘서트는 성가대와 찬양팀으로 구성된 연합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문을 열었다. 영어회중과 중국어회중도 참가했다. 트리오(이종길, 송릴리, 신희래), 듀엣(최종원 지휘자, 박원준, 솔로(우정현)도 찬양했다. 연합찬양 후, 황영송 목사의 인도로 데이튼 난민선교를 위한 합심기도가 진행됐으며 황영송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2023년 뉴욕선교대회와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 마친 후 사진촬영 했다

# "함께 모여 부르짖고 금식하며 준비하자"

2023 뉴욕선교대회 및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는 6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2023년 뉴욕선교대회 및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한 제1차 준비기도회를 열었다.

뉴욕교협 회장 이준성 목사는 "지난 3주 동안 병원에 있어 많은 준비를 못했다"며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것이며 뉴욕이 중심점이 되어 교협이 아름답게 되고 2023년 뉴욕선교대회와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에게 희망과 영성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설교후 합심기도로 이어진 1부 예배는 박태규 목사(할렐루야 준비위원장) 인도, 김영철 목사(감사) 기도, 김여호수아 목사(가나안침성교회) 설교, 지인식/지정은 목사 찬양과 김택용목사 헌금기도로 진행됐다.

김여호수아 목사는 '미스바 부흥의 기도 운동(삼상 7:1-12)'이란 설교 제목으로 "미스바 영적 부흥 운동은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여 승리하였다"며 "교협산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로 뉴욕선교대회와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뉴욕 도시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합심기도는 △2023 선교대회 및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감사, 순서자들, 진행과 날씨를 위한 기도) 위하여 김순자 목사(협력위원), △2023 선교대회 및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준비위원들-협력, 진행, 예배, 찬양, 후원, 홍보, 주보,

안내, 헌금, 주차) 위하여 김희숙 목사(수석협동총무), △2023 할렐루야 어린이 복음화대회를 위하여 이승진 목사(예배분과위원장)의 순으로 인도했다. 1부 예배와 합심기도는 신현택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는 이준성 목사(교협 회장)의 사회, 허윤준 목사(많은 준비를 못했다)며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것이며 뉴욕이 중심점이 되어 교협이 아름답게 되고 2023년 뉴욕선교대회와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에게 희망과 영성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설교후 합심기도로 이어진 1부 예배는 박태규 목사(할렐루야 준비위원장) 인도, 김영철 목사(감사) 기도, 김여호수아 목사(가나안침성교회) 설교, 지인식/지정은 목사 찬양과 김택용목사 헌금기도로 진행됐다.

김여호수아 목사는 '미스바 부흥의 기도 운동(삼상 7:1-12)'이란 설교 제목으로 "미스바 영적 부흥 운동은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여 승리하였다"며 "교협산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로 뉴욕선교대회와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뉴욕 도시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합심기도는 △2023 선교대회 및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감사, 순서자들, 진행과 날씨를 위한 기도) 위하여 김순자 목사(협력위원), △2023 선교대회 및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준비위원들-협력, 진행, 예배, 찬양, 후원, 홍보, 주보,

<홍현숙 기자>



선교 음악회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 뉴욕새교회 선교음악회, 니카라과, 미안바, 아마존 선교 지원

뉴욕미션과이어와 뉴욕 대표 연주자들 함께 찬양

뉴욕새교회(담임 이성희 목사)가 주최하는 선교음악회가 6월 11일(주일) 오후 5시 뉴욕새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번 선교음악회의 수익금은 니카라과 의료 및 학교사역, 미안바 어린이들의 생활지원, 아마존 3개국의 문화사역들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선교음악회는 뉴욕새교회 찬양대뿐만 아니라 뉴욕미션과이어와 챔버 오케스트라가 제시 유 교수의 음악감독과 지휘로 출연했다.

뉴욕새교회 송정훈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에서 '우리 모두 찬양하세'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는 참가한 회중들과 뜨겁게 함께 부르는 시간이

가졌다. 음악회에는 뉴욕의 대표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유안나, 소프라노 정은진, 테너 배정호, 바리톤 김기환 목사가 찬양을 올려 드렸다.

엔콜곡으로는 바벨(김정환 작곡, 차정호 합창곡으로 편곡)과 놀라운 은혜(Amazing Grace)를 다함께 불렀다. 피아노 반주와 키보드 연주는 피아니스트 최선아와 김헬렌이 번갈아 가며 맡았고, 뉴욕새교회와 뉴욕미션과이어 등 2개의 합창단이 연합으로 챔버오케스트라 협연으로 멋진 연주를 보여 주었다.

<정리: 김재상 기자>

#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 연주회

Lighthouse 후원과 선교회 기금마련을 위한 정기 연주회

한인교회 1세와 차세대들이 음악을 달란트로 모인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가 찬양연주회를 6월 11일(주일) 오후 6시 친구교회에서 열었다. 특별히 이번 연주회는 미혼모를 위한 Lighthouse 후원과 선교회 기금마련을 위한 정기연주회로 열렸다.

1부 예배는 예배의 부름 김동석 이사장(뉴욕성실장로교회), 기도 김준근 목사(뉴욕플러싱교회), 성경봉독 김상욱 목사(주사랑장로교회), 찬양 뉴욕기독교여성합창단(단장 한정화, 지휘 박미용), 설교 차석희 목사(고문이사, 뉴욕성실장로

교회), 특별찬양 소프라노 박미용과 오수현, 축도 이상문 목사(위드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연주회를 시작하며 김해은(뉴욕성실장로교회) 회장이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이 여름에 뜨거운 태양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열정적인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며 인사했다.

이어 선교회에 속한 차세대 찬양팀이 나와 발표를 했다. 소속 찬양팀은 뉴욕기독교리틀키즈합창단(단장 곽소라, 지휘 오수현), 뉴욕기독교어린이합창단(단장 박한이, 지휘 전용지), 뉴욕기독교청소년합창단(단장

이효빈, 지휘 최한솔), 예담국악선교단(단장 오선주, 지휘 장영주), 예모국악선교단(단장 백진아, 지휘 장영주), 기독교 클라시 앙상블(단장 양대일) 등이다.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는 2015년 Delight 어린이국악선

교단부터 시작했으며, 2017년 창단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선교회는 현악과 국악, 그리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포괄적인 예술선교회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 연주회를 마치고 다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제 9회 독후감 공모전 열려 영적 성숙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 제공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가 주최하는 제 9회 신앙도서독후감공모전이 열린다. 올해로 9회째 이어지고 있는 본 공모전은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사역과 몸담고 있는 현장 속에서 더욱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 바라는 목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올해도 다음과 같이 6권의 책을 선정했다. △ 탕부 하나님(팀 켈러/두란노) △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손성찬/두란노) △ 묵상과 기도(김경은/성서유니온) △ 믿음을 묻는 딸에게(정한옥/깊은 문고) △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손성찬/두란노) △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아픔(하재성/생명의 말씀사) 독후감은 레터 용지 3페이지 분량(글자 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오는 10월 31일이다. 원고에는 응모자의 이름, 출석교회, 직분,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명시 하여 wkcmmailbox@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접수된 독후감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각각 \$500, \$300, \$200의 부상을 수여하며 참석자 모두에게 참가상이 주어진다. 자세한 것은 독후감 공모전 광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강박장애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김경준 박사

###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 8월11일까지 진행돼

“한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각종 프로젝트 제공”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와 기관이 함께 준비한 제1차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이 지난 5월12일 오전 10시 아메리칸 웨스트대학 2층(1818 S. Western)에서 ‘불안장애’를 주제로 시작 돼 6월16일까지 진행되며 2차 워크샵은 7월7일(금)부터 8월11일(금)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9일(금) 오전 10시 1차 워크샵 다섯 번째 시간, ‘강박장애’를 주제로 열린 워크샵은 김경준 박사(월드미션대 상담심리학과)가 강사로 단에 섰다. 김박사는 “정신적인 사람도 때로는 오염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생각, 생활 속에서 오는 착각 등이 흔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태를 ‘강박장애’라고 한다.”며 강박 및 관련 장애 유형에 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강박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강박장애의 원인

은 유전적 또는 환경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으나 심한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치료 또는 심리치료를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약의 성분 및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본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컨설턴트 김효철 박사는 “본 워크샵은 한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시작되었기에 한인들의 참여도에 따라 그 다음 단계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세미나에 전폭적인 한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7월7일부터 시작되는 2차 워크샵은 ‘자살’, ‘정신 분열증’, ‘성격 장애’, ‘수면 장애’, ‘낙인’, ‘섭식장애’ 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강사는 김경준 박사(월드미션대학교 교수), 수잔정 박사(카이저 정신과 은퇴 닥터), 양에스터 박사(미주 장신 가정상담학 교수)이다. 본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213)820-8855 또는 khckjo@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추천도서사진



미주성결교회 44회 총회가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렸다

### 미주성결교회 제44회 총회 성료 총회장 허정기 목사, 부총회장 조승수 목사, 최은호 장로

미주성결교회 제44회 총회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열려 대내외적인 갈등을 봉합하고 세계 속 성결교회로 비상을 할 것을 다짐했다. 미주성결교회 50주년을 기념해 한국에서 처음 열린 이번총회에서는 희년정신을 발휘해 그동안 한국 총회와의 갈등을 야기한 헌법전개정 문제와 중앙 지방회 분립사태 등 복잡한 실타래를 풀고 더 나은 미래를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미주총회의 새로운 50년을 이끌어갈 총회장에는 허정기 목사(몬트리올 호산나교회)가 선출되었다. 첫날 50주년 감사예배에 이어 둘째 날 성만찬으로 시작된 총회는 대의원 246명 중 140명(위임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총회 임원선거에서는 단독으로 출마한 허정기 목사(몬트리올 호산나교회)가 추대형식으로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 목사 부총회장에는 조승수 목사(더브릿지교회)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최은호 장로(연합선교교회)가 각각 선임 되었다. 서기에 김중호 목사(연합선교교회), 부서기에 김위만 목사(워싱턴감사교회), 회계에 박찬일 장로

(통아일랜드교회)등 임원직을 마쳤다. 회무에서는 총회에서 중앙지방회 분할 및 뉴저지 지방회 신설안이 가결되어 미주성결교회에 14번째 지방회가 설립되었다. 지난해 전만 개정한 미주 헌법 중 명칭과 한국 총회와 관계에 관한 조항을 전면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미주총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헌법 제1조와 3조, 33조 등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미주성결교회’로 개정했다. 미주성결신학대학교 이사회도 황하균 총장을 연임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취임한 황 총장은 미주성결신학대학교를 동부지역 명문한 인신학교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팬데믹 기간 줌(ZOOM) 온라인 강의를 정착시켰으며, 성서지리 이스라엘 탐방 등 현장교육도 강화했으며, 교단가 입 및 목사안수를 위한 위탁교육도 실시했다. 서울신학대학교와 MOU를 체결하는 등 교류협력도 확대했다. 또한 미주성결신학대학교는 이사장 이대우 목사 후임으로 조승수 목사(더브릿지교회)를 선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대흥장로교회 김정훈 담임목사 위임식을 마치고 김정훈 목사와 본교회 당회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우측아래 타원안은 위임예배 후 김정훈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위임축하케익을 자르고있는 모습

### 대흥장로교회 김정훈 담임목사 위임감사예배 “아버지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을 기억하고 사역 어여갈 것”

대흥장로교회 김정훈 담임목사 위임감사예배가 지난 4일(주일) 오후 2시에 열렸다. 김정훈 목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린다. 위임예배를 준비하면서 짧은 인생을 돌아보니 은혜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부모님과 가족들의 기도가 있었음에 감사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로 맡겨진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겠다. 전임 목사님께서 가지셨던 아버지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을 기억하고 선배목사님들의 사역을 잘 계승 해나가겠다”라며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종이

며 저에게 맡겨진 교우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섬기는 목사가 되어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만 남는 교회가 되어 주님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중환 목사 사회(KAPC 서남노회 서기)로 열린 위임감사예배는 김성규 목사(KAPC 서남노회 회록서기)가 기도했으며 연합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박규성 목사(서남노회 노회장, 위임국장)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딤후 2: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규성 목사는 “대흥장로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며 우리 일을 통해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위임식은 위임서약, 회중서약, 공포, 위임패 증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축하의 시간이 있었는데 민중기 목사(서남노회 증경노회장, 총현선교교회 원로)가 권면, 백정우 목사(남가주동신교회)가 축사했으며 김정훈 목사가 답사했다. 이날 예배는 김유 목사(전 임시당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연합감리교 가주 태평양연회 한인 목회자 대거 이동

연합감리교 가주 태평양연회는 로스펠리즈 교회를 담임하던 신병욱 목사에게 파송중단 명령을 통보했다. 이 같은 파송중단 명령은 토렌스연합감리교회 강현중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로스펠리즈 교회엔 이석부 목사(나성금란교회)가 파송되고 나성금란교회엔 하와이 올리브연합감리교회 담임 김배선 목사가 파송된다. 또 드립교회를 담임하던 정영희 목사는 하와이 에버비치 UMC로 파송되며 드립

교회엔 최요셉 목사(연합교회)가 파송된다. 연합교회엔 엄희조 목사가 분처목사(Local Pastor)로 파송될 예정이다. 또 샌디에고 희망교회엔 조기현 목사(금란교회 강현중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로스펠리즈 교회엔 이석부 목사(나성금란교회)가 파송되고 나성금란교회엔 하와이 올리브연합감리교회 담임 김배선 목사가 파송된다. 또 드립교회를 담임하던 정영희 목사는 하와이 에버비치 UMC로 파송되며 드립

다. 또 하와이 에버비치에서 목회하던 정치영 목사는 하와이 올리브연합감리교회로 파송될 예정이다. 한편 로스펠리즈 연합감리교회에서 20여년 동안 사역하고 갑작스레 파송중단 명령을 받은 신병욱 목사는 “아무리 연합감리교회가 글로벌 감리교회와 분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 갈 곳도 없는 마당에 갑자기 파면을 해 버리면 너무 야박한 처사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캠프

밀알선교단 서부지단(남가주, 북가주, 밴쿠버) 연합으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캠프’를 ‘축제’란 의미의 FIESTA(요한계시록 19:7)”로 22일(목)-24일(토)까지 2박3일동안 아름다운 경치와 안전한 환경을 지닌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Long Beach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 문의: (562)229-0001

### 나성금란교회 담임목사 이임식

나성금란교회는 이석부 담임목사 이임식을 18일(주일) 2부예배(오전 11시) 시간에 갖는다. ▲ 문의: (310)973-5106

### 캠코럴 제15회 정기연주회

캠코럴(지휘 이수정) 제15회 정기연주회가 17일(토) 오후 7시 뉴라이프커뮤니티교회에서 열린다. ▲ 문의: (310)909-9975, (714)723-2685

### 제2차 워싱턴주 선교대회

제2차 ‘워싱턴주 선교대회 2023’이 오는 16일(금)부터 이틀동안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서 “너희가 받은 복음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선교대회 주 강사는 이승중 목사(세계기독교선교협의회/KWMC 대표회장, 어깨동무 사역원 대표)가 ‘선교적 교회, 예수 회복’, 강명관 선교사(브라질 아마존 성경번역 선교사)가 ‘한권의 성경을 전하기 까지’, 양성구 교수(성경역사 대학교 목회신학교수)가 ‘킹 목사의 화해신학과 선교적 의미’란 주제로 각각 말씀을 전한다. 이번 선교대회는 워싱턴주 선교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가 협력하며 미디어 한국의 협찬으로 개최된다. ▲ 문의: (206)853-5273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학위수여를 받은자들과 교수들

### 월드미션대학교 제32회 학위수여식

“배우고 익힌 것을 보여 주며 하나님께 영광돌리길”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제32회 학위수여식이 지난 3일(토) 오후1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열렸다. 신선목 박사 인도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유강수 교수가 기도했으며 신선목 교수의 학사보고 후 학위수여를 했다. 이어 오위영 목사가 축가를 불렀으며 임성진 총장이 총장 명령 전총장 축도로 마쳤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한줄리, 김현 등 박사7명, 최원현, 김경욱 등 석사 48명, 최지원, 김민선, 김은경 등 학사 47명 등 총 102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박준호 기자)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이다. 배운 것, 훈련받은 것, 실습한 것을 현장에서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태인 학우가 졸업생 대표로 답사했으며 이조이스 학우 인도로 헌신의 기도를 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고가제창 후 송정명 전총장 축도로 마쳤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한줄리, 김현 등 박사7명, 최원현, 김경욱 등 석사 48명, 최지원, 김민선, 김은경 등 학사 47명 등 총 102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박준호 기자)



테너 오위영 제자음악회에 출연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테너 오위영 제자음악회

“노래는 우리의 생활을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

오위영 뮤직 아카데미가 주최하고 보나뮤직(대표 이혜자)이 주관한 테너 오위영 제자음악회가 10일(토) 오후 6시, 11일(주일) 오후 4시에 광강교회(담임 송금관 목사)에서 열렸다. 오위영 목사는 “노래는 우리의 생활을 밝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참 좋은 도구이다. 우리의 인생은 노래를 불러서 즐겁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소중하게 느끼게 된다”며 “이번 음악회가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배가 되어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금관 목사

기도로 시작된 첫날 음악회는 소프라노 그레이스 장, 김영순, 김명자 등 오위영 목사의 제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특별히 공명기 씨는 90세가 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악가 못지않은 발성으로 노래를 불러 이날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도전을 주었으며 엘토 정병희 씨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파스말을 안겨주어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다. 이날 음악회는 이상기 목사(광강교회 원로)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차비도 드려요”...미자립교회 반기는 여름 수련회

올해도 미자립교회 다음세대 위한 수련회 열려

미자립교회 학생들에게 여름 수련회는 ‘그림의 떡’이다. 재정도 여의치 않을뿐더러 다음세대를 섬길 교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수련회를 열기 어렵다. 심지어 수련회비를 마련해 대형 수련회에 참여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끼리는 경우가 많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목회 중인 한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대형 수련회에 가면 큰 교회 학생들이 무리 지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위축된다”면서 “그런데 미자립교회 중심의 수련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올해도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자립교회 학생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연합수련회가 올해도 곳곳에서 마련된다. 경기도 성남시 할렐루야교회(김승욱 목사)는 다음 달 27일부터 사흘간 전국청소년연합수련회 ‘스피릿 파워(SPIRIT POWER)’를 개최한다. 미자립교회 청소년은 숙박부터 식사까지 1만원에 참여할 수 있고 교통비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수련회에 참석했던 학생 3명 중 2명이 미자립교회 청소년이었다. 충남 아산큰빛교회(김성권 목사)도 오는 8월 7일부터 사흘간 ‘더파워캠프’를 진행한다. 1999년부터 다음세대와 함께

한 이 수련회는 지난해까지 무료로 열려 청소년과 청년 1만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부터는 참가비 1만원을 받는다. 이른바 ‘노쇼’를 방지하려는 장치다. 두 교회 교역자 모두 “교회 재정 상황과 규모를 고려해 수련회 후 미자립교회 측에 회비를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무료에 가까운 회비를 받지만, 주최 측은 풍성한 수련회가 되도록 힘을 쏟았다. 두 캠프에 래퍼 아년달라이트가 참여하고 SP수련회에선 헤리티지매스사이어의 찬양콘서트와 천중호 판사의 특강도 준비돼 있다. 더파워 캠프에는 김복유 달빛마을 등 찬양 사역자들이 나선다.

주최 측은 다음세대를 만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더파워 캠프 길예찬 전도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일상을 되찾은 만큼 다음세대도 수련회에서 예배를 회복해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 자리를 지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자립교회 청소년을 반기는 여름 수련회는 이외에도 많다. 뉴비전에 참여할 수 있고 교통비도 신청할 수 있다. 오 대표는 “8월 3일부터 사흘간 뉴비전 캠프를 개최한다. 미자립교회는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B.위시(대표 한규석 전도사)는 8월 10일부터 이틀간 B1캠프를 연다. 참가자의 70% 이상을 미자립교회 청소년으로 받는다.



### 성혁명 반대...희망의 대한민국 위한 ‘거룩한 분노’

‘초교파’ 전국 목회자 3000명 한자리에 모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기독교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포괄적차별금지법(차별법)과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 기본계획(NAP), 쿼터 행사 등 성경에 반하는 성혁명 물결에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공동대표 원성웅 한기체 이재훈 목사) 등은 13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김운성 목사)에서 ‘3000인 목회자 대회,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를 열었다. 기도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와 기독교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오정현(사랑의교회) 김운성(영락교회)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는 이날 각각 ‘자유’ ‘문화’ ‘남성과 여성’ ‘교육’을 주

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세상은 자유를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결부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만이 참된 자유라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를 방임하면 모든 사회 구조와 질서, 가정 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참된 자유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자 그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목사는 “세속적인 문화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에 살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창조적 분리가 필요하다”며 “성경 속 오바다와 다니엘처럼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붙잡고, 그리스도 인으로서 무신론 이념과 급속

한 세속화의 물결에 전투적 비폭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성혁명 기조의 문제점을 알려온 시민단체도 뜻을 보탤다. 동성애 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 김원평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과 자유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을 지우지 않아 결국 교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김 교수는 또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면 학생의 권리 침해가 심각해진다는 시각은 잘못됐다”며 “학생의 권리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의해 지금도 충분히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서구와 달리 차금법 등 성혁명 물결을 막아온 점을 높게 사며, 약법 저지에 계속해서 헌신하자고 호소했다. 조 변호사는 “교회가 차금법을 막기 위한 성경적 방법은 명확하다”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차금법을 정당화하는 유물 진화론에 기반을 둔 각종 학문과 자유주의 신학 등에 맞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도회는 백발의 노인부터 청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도 함께 자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기도회 후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희망’ 다음세대, 교회가 지킨다’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으며, 앞으로 성혁명 물결을 막아내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 3040세대 잡는 해법은 “가정 친화적 사역”

예장통합 13일 ‘3040세대 목회전략 세미나’

3040세대는 무종교인이 20대에 이어 두 번째로(30대 70%, 40대 68%) 많은 세대다.(2021, 갤럽) 이들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라는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세대이기도 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총회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목회전략 세미나를 열고 3040세대 선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선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040세대가 활성화된 교회의 특징

은 이들을 위한 독립적인 사역이 마련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3040 부서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경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서울 상원교회(김명철 목사)는 젊은 엄마들이 아기 학교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교사들이 봉사한다. 서울 시냇가푸른나무교회(신용백 목사)는 주일 주차장을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3040세대만 이용하게 하고 경기도 갈보리교회(이웅조 목사)는 주일 오후 부모와 자녀가 함

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했다. 이밖에도 자녀 학교 부부관계 부모교육 모임 등 통합적이고 가정 친화적 사역이 3040세대를 사로잡았다.

세미나에서 좋은 사례로 추천된 서울 무학교회(윤동일 목사)도 3040 부서의 기본 사역을 ‘온 가족’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 해외선교 찬양대회 운동회 수련회 바자회 등 1년간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게 독려한다. 3040부서 담당 김의성 목사는 “가정 단위 사역을 진행해 보니 시니어 가정 주니어 가정을 돌보고 공동 육아를 진행하는 등 역동적인 경험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신앙적으로 건강한 젊은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이해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다만 너무 가족 단위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싱글 가정이나 이혼가정 무자녀 가정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진 이들이 소외되면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성석환 장신대 교수는 “다양한 3040세대를 모임에 포함하되 활동과 소그룹 모임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존중받고 있음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성들이여, 회복 통해 가정·교회·공동체 살리는 역할 해내자”

국제YWAM ‘브레이브 러브팀’ 한국예수전도단 공동 주최 콘퍼런스

드보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나온다. 12사사 중 유일한 여성으로 전쟁터에도 나간 용감한 여인이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한 여성의 상징이다. 국제예수전도단(YWAM)에 소속된 ‘브레이브 러브팀’은 드보라와 마리아처럼 전 세계 여성이 각자의 고유한 부르심을 회복하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가정, 일터와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는 ‘브레이브 러브( Brave Love )’ 여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 미국YWAM에 소속된 브라이언 브리트 선교사 부부는 20여명의 젊은 여성과 함께 전 세계 여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사역을 시작했다. 이들을 통해 하와이 코나의 국제YWAM 열방대학에서 브레이브 러브팀이 결성되는 등 여성 사역이 이어졌다. 브레이브 러브팀은 2017년부터 스웨덴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한국예수전도단과 브레이브 러브팀이 공동주최하는 여성 사역자 콘퍼런스 ‘브레이브 러브 콘퍼런스 인 서울’이 12일 서울 서초구 훗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하용호홀에서 열렸다. 주강사는 국제YWAM 브레이브 러브팀 새넌 카스텔 선교사다. 카스텔 선교사는 강의 전 기도회를 인도하며 참석자들에게 마음의 역동적인 짐을 내려놓

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했다. 그러

면서 여성 사역자들을 향해 “우리는 완벽하게 사역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며 “또 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통제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정도로 힘든 순간이 많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성경적 여성으로서의 회복에 대해 도전받았다. 훗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졸업생 최수현 사모는 “그동안 힘을 많이 주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간 시간이 있다”며 “가정과 교회 등을 세우는 ‘뚝배기’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주변에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 동북아 방송선교 50년 열매... 북한·일본서도 하나님 은혜 듣는다

제주 극동방송 개국 50주년 기념예배

제주 극동방송(채평기 이사장)은 지난 9일 50년간 동북아 방송 선교를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주시 연동과 애월읍에서 각각 ‘조찬 감사예배’와 ‘개국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다. 해군해병 연합국악대와 제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기념 감사예배에서는 73년 설립 당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제주영

락교회 연합 성가대가 찬양곡 ‘은혜’를 부르며 그날의 영광을 재연했다.

심상철 제주영락교회 목사는 ‘오십주년’(고전 15:10~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50년 전 제주 극동방송에서 시작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나라와 참차 북녘땅에서 역사를 이룰 그날을 하나님이 속히 허락해 주시길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김정환 목사는 이날 50년 전 제주 극동방송 설립 기반에 큰 도움을 준 고 윤치영 전 민주공화당 의장의 아들 윤인선씨 내외에게 감사를 표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기념 예배에는 케이코 요시자키(81) 일본 FEBC 전 이사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케이코 전 이사장은 “일본에는 종교 방송사를 세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제주 극동방송에서 전파를 쏘아 올리는 것이 유일하게 복음방송을 들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며 “50년간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 일본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다.

세계 4대 라디오 방송 중 하나인 FEBC는 50억 149개 방송사가 128개 언어로 40억 가정 인구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한국 극동방송은 AM 2개, FM 13개, 중계소 9개로 복음을 전하며 땅끝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한기봉 극동방송 사장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동북아시아를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피종진목사 6월부흥성회

○총신대학교 제56회 동문회 회장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영어연구원 동문회 회장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 (D.Min)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 (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목)-2(금) 천안 위대한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5(일) 저녁 안산시 연합 특별성회 주최 : Good TV 부흥사 협의회 (대표회장 김용희 목사) 02-7291-0291  
주소 : 안산 기쁨의교회 (김순희 목사)  
6(화) 오후 서울 강남순종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8(목) 오전 연세대학교 연부협 Event Function  
10(토) 오전 Enterprise Blessing  
10(토) 오후 국제신학교 (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제231차 해외성회 (231th Overseas Assembly)**  
12(월) 일본 (JAPAN) 동경 나라타 총회신학 (학장 정스대만 선교사)  
13(화) 일본 (JAPAN) 나라타 사범교회 (학장 정스대만 선교사, 김태일 선교사)  
14(수) 일본 (JAPAN) 예수 사랑교회 성회, 한울장로성가단 특별공연  
15(목) 일본 (JAPAN) 동경 우에노공민 전도사역 및 일본인과 중국인을 위한 환국문화홍성의 한울성로성가단 특별공연  
일본 Narita 출발  
16(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방 목사) 010-8331-3431  
19(토)-20(토) 서울 위대한약속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22(목)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주최 : 사단법인 누가교회 (총재 정근모 전 장관 대표회장 김성만 목사) 010-6230-5530  
22(목) 오후 제천 열방교회 (최미나 목사) 010-2985-9077  
주최 : 한국기독교 여성총연합회 (대표회장 권영자 목사)

23(금) 미국 (USA) 조지아 아가페신교회 (강진구 목사) (678) 462-7526  
24(토) 미국 (USA) 미주 동남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 연합성회 (준비위원장 윤도기 목사)  
25(주일) 미국 (USA) 아틀란타 화평성교회 (김용환 목사) (770) 963-3124  
26(월) 미국 (USA) 아틀란타 목회자 세미나 (준비위원장 김영민 목사)  
27(화)-29(목) 미국 (USA) Arkansas 제자교회 (전남수 목사) 501-920-9049  
주최 : NYSKC World Mission (HQ 뉴욕)  
총재 피종진 목사 (서울),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 (뉴욕)  
사무총장 김민복 목사(LA), 준비위원장 전남수 목사(Arkansas)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총회  
www.nasca.or.kr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1-7770

# mission 선교의 창 (217)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선교의 첫 관문인 타 문화권 언어습득

타 문화권 언어 습득은 선교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선교는 수박 겉핥기 식 사역이 되기 쉽다. 일반적으로 한인 선교사들은 언어 습득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주된 관심사는 사역이다. 하루라도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한다. 어떤 이는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말 한마디 못해도 통역을 써서 일을 시작한다. 참으로 무식 용감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렇듯 한인 선교사들은 그 사역의 연륜과 내용에 비해 현지 언어 수준이 낮다. 이방 언어 습득을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사역문화는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큰 우(愚)를 범한 것이다. 선교는 그 나라 언어 수준만큼 문화 이해가 되고 사역도 심층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탄한 기초 공사 없이 어떻게 큰 빌딩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난 곳 방언을 경시한 선교패턴은 심각히 재고되어야 한다. 현지 언어습득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1. 장기사역을 위한 인식의 변화

우리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자는 첫 팀(Term)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역의 미래가 결정된다. OMF선교사 출신이자 강해설교의 대가인 데니스 레인(Denis J. V. Lane)은 "선교사에게 첫 2년은 평생 사역의 기초를 놓은 기간이며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하였다. 맞는 말이다. 이는 이식하는

나무와 같다. 만일 30년 된 사과 나무를 뽑아 기후와 토양이 전혀 다른 지역에 심을 때 대두되는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 이는 "얼마나 빨리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 문제이다. 나무가 살아나려면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독한 투쟁이다. 만일 제한된 자양분을 뿌리에 투자하지 않고 잎이나 열매 쪽으로 보낼 때 그 나무는 곧 말라 비틀어 죽게 된다. 그러므로 선교지에 첫 발을 내딛는 자는 모든 정력을 현지 언어 습득에 쏟아야 한다. 기초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재정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그 자

체가 하나의 사역이다.

### 2. 선교사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과업

서구 선교사 사회에서는 보통 한 팀을 4년으로 친다. 이 때의 주된 사역은 현지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OMF나 WEC 같은 국제기관에서는 Language Supervisor가 있다. 그는 시어머니처럼 인턴 선교사의 언어습득을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신참 선교사는 첫 팀 2년 동안은 일을 할 수 없다. 오로지 언어습득에 전념해야 한다. 나머지 2년도 자유함이 없다. 계속적으로 언어습득에 집중하며 부분적으로 협력사역을 참여하게 한다. 그리하여 한 팀이 끝날 때는 최종 언어수준 평가를 받는다. 만일 기대수준에 못 미칠 경우 그는 선교기관을 떠나야 한다. 따라서 인턴 선교사는 늘 긴장한 채로 현지 언어 습득에 매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선교사 관리제도는 서구 선교단체의 오랜 노하우에서 나온 것이다.

### 3. 브루스터(Brewster) 부부의 언어학습 기술개발 이론

현지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가능한 정규

관계 속에서 언어를 배우고 개인 소지품을 20kg으로 제한하라. 셋째 방법론적인 면에서 생활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라. 넷째 현지에서 몸으로 부딪치면서 배우라."라고 조언한다. 요약하면 어린아이처럼 생활 속에서 듣고 말하기를 반복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선 문법 또한 따로 공부해야 한다. 문법적인 이해는 언어생활에 완성도를 더하고 보다 정확한 의미와 감정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 4. 모범적인 TLI (Taipei Language Institute) 언어 학습법

TLI는 대만에 있던 외국어 교습학원이다. 여기는 주로 선교사들에게 중국어를 학습시키는 곳이다. 학원 원칙은 선생과 학생의 1:1맞춤형 교육방식이다. 1:1 학습법의 장점은 학생이 딴 생각을 하기 어렵다. 이 때 선생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기보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언어실습대상으로서 역할을 한다. 선생은

제가 우체국에 관한 것이었다면 책을 들고 우체국으로 가서 직접 언어표현을 하며 실습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과정은 학생 입장에서 간단치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언어 진보를 위해서는 못 할 바가 무엇이라!

### 맺음 말

현지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인가? 정도를 걷는 것이다. 요령을 피우며 대중 건너뛰며 그 여파는 평생을 간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이라는 말이 그냥 전래된 게 아니다. 선교는 어차피 장기전이다. 그러므로 선교 헌신자는 혜안(慧眼) 가운데 순리적으로 발을 내딛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현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언어 학습에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다. 아니다. 왕도가 있다. 무조건 용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방법론을 따라가야 한다.

감사하게도 서구선교 기관들을 좋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은 저

난 곳 방언은 토착민의 마음을 여는 키이다.  
인간은 혀가 있는 한 어떤 언어도 배울 수 있다.  
문제는 학습자의 열정과 반복적 응용과 지속성에 달려있다.

현지 방언을 제대로 습득하기 어렵다. 살아가면서 천천히 하면 되는 것이지? 천만의 말씀이다. 누구에게나 첫 팀은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된 순간이다.

현지에 아는 이도 없고, 오고 갈 대도 없다. 할 일도 없다. 길도 모른다. 언어 소통이 안 되므로 답답하다. 이러한 환경은 언어 학습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학습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쯤 지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여기저기 다닐 길도 알게 되고 친구도 생긴다. 현지 말도 조금씩으로 긴장도 많이 풀린다. 그러면 자연히 제한된 에너지가 분산된다. 결국 나중에는 생활언어 수준에 머물면서 활동

언어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좋다. 혼자 한다거나 개인적인 레슨은 효과가 적다. 언어 학습자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듯 최선을 다해야한다.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방법적으로 지식과 이론을 생활 가운데 동시적으로 적용함이 중요하다. 언어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은 언어가 된다. 선교사 언어훈련 전문가인 토마스, 엘리자베트 브루스터(E.Thomas Brewster, Elizabeth S. Brewster)부부는 "언어학습기술개발을 위해 첫째 그 지역 현지인과 함께 살며 지역 대중교통만 이용하라. 둘째

대화를 유도하며 잘못된 부분의 교정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수업은 주 5일 하되 하루에 보통 2시간씩이다. 학생에게 처음 교육한 것은 발음이다. 언어 학습에서 발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나쁜 발음이 몸에 배면 고치기 어렵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말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고 눈만 뺨긋뺨긋할 때처럼 힘 빠지는 것도 없다. 이곳에서 강조한 학습법은 4-2-1전략이다. 즉, 2시간 수업을 위해 4시간 연습을 하게 한다.

대화식 수업에 이어서 학습자는 최소 1시간 복습을 해야 한다. 복습의 현장은 배운 주제와 맞는 곳이다. 이를테면 오늘 주

들의 합리적 사고를 겸손히 배워야 한다. 특별한 외국어 습득 방법에서는 배울 것이 많다. 그 대표적은 것은 서두르기보다 즐기는 일이다. 따라서 처음 파송 받은 선교사는 사역적 욕심을 내려놓고 시작부터 차근차근 다져가야 할 것이요, 기존의 선교사들도 난 곳 방언을 습득해 가는 데 멈춤이 없어야 다. 그러면 언어의 진보가 대나무 마디처럼 한 단계씩 올라 갈 것이며 사역도 큰 힘을 받을 것이다.

jrson007@hanmail.net



## C. S. 루이스의 생애 산책 (4)

### 옥스퍼드 대학 생활

1차 대전이 종료하자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옥스퍼드 학생들이 복학하기 시작했습니다. C. S. 루이스도 서둘러 학교로 돌아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루이스는 이때부터 학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루이스의 전기기를 쓴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주장합니다. 맥스웰 박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은 학자가 되기 위해 필수인 고전어와 고전 문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루이스는 일찍이 몰번 재학 시절에 고전어를 공부했습니다. 당시 운동에 재능과 취미가 없었던 루이스는 도서관을 피난처로 삼아 책과 살았습니다. 그 시절 루이스는 고전 담당 교사 웨이클린 스미스(Harry Wakelyn Smith)와 친해지면서 고전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스미스는 루이스에게 라틴어를 가르쳤고, 스미스의 도움으로 루이스는 그리스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나아가 루이스는 커크패트릭 선생으로부터 고전어 공부의 심화학습을 했습니다. 탁월

한 교사였던 커크패트릭은 루이스의 고전어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커크패트릭 선생은 루이스를 만난 지 1년이 지난 후에 루이스의 아버지에게 "잭(루이스)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그리스 희곡을 가장 탁월하게 번역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루이스는 이미 고전어와 고전 문학을 공부할 준비가 되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 고전어와 고전 문학 즉 "리테라이 후마니오레스(Literae Humaniores)"를 공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옥스퍼드 대학교가 자랑하는 코스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학문이라는 왕관의 다이아몬드라고 칭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옥스퍼드 대학교 학부에서 최고의 과정으로 인정받는 고전어와 고전 문학 과정을 루이스가 공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옥스퍼드 대학교 고전어와 고전 문학 심화 과정인 "리테라이 후마니오레스(Literae Humaniores)"는 현대적인 표현을 빌리면 인문

학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유명한 고전학자인 윌리엄 아치볼드 스푼너(William Archibald Spooner)는 '고대 세계의 문명과 사상에 잠기는 것'이라고 요약했습니다. 많은 고전 작품을 강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라틴어 "리테라이 후마니오레스(Literae Humaniores)"는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풀면 '더 인간적인 학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문학(후마니타스/Humanitas)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던 키케로(Cicero)가 인문학을 '인간다움을 만드는 학문'으로 설명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이 과정은 과거의 지적 문화적 유산에 직접 참여함으로 정신을 확장하고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리테라이 후마니오레스(Literae Humaniores)"를 공부하는 옥스퍼드 대학생들은 고전들을 원어로 직접 강독하는 차원 높은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와 옥스퍼드 대학의 고전 인문학에 관한 관심

이 확인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리테라이 후마니오레스(Literae Humaniores)"는 단순한 지식 축적이나 학문적 관심을 끄는 주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개인은 물론 영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 줄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리테라이 후마니오레스(Literae Humaniores)"는 지혜로 가는 문이었고 삶의 도덕과 인격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보물 창고로 보았습니다.

루이스 시절에 이 과정은 까다롭기도 하고 광범위해서 다 공부해야 했습니다. 루이스는 이 과정에서 탁월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과정의 수료를 결정짓는 두 번의 시험에서 각각 1등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것은 많은 독서와 탁월한 고전어 실력을 자랑한 루이스의 실력이 잘 드러난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루이스가 고전어와 고전 문학을 공부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루이스의 문학적 실력이 발휘된 것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입니다. 1921년 4월에 루이스는 총장배 에세이 공모전에 응모하였고 루이스 작품이 뽑혔습니다. 이것은 루이스가 학자로, 저술가로 그리고 인문학자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루이스의 대학 생활은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는 대신 무어 부인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 대학 시절에 영문학을 공부하며 영문학에 상당한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평생을 같이 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오랜 친구 아서 그리브스와 우정을 심화했고, 오웬 바필드(Owen Barfield)와, 영문학도 범생 네빌 코그힐(Nevill Coghill)도 만났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루이스 인생의 동반자요 스승이었습니다. 루이스는 바필드를 가리켜 '비 공식적 스승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고 바필드의 지적은 언제나 수용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매사에 의지가 달랐던 바필드와의 교제와 우정을 통해서 루이스는 건강하고 견고한 생각의 사람이 되

었습니다.

이렇게 루이스의 옥스퍼드 대학 생활은 알차고 기쁨진 시간이었습다. 부담스러운 졸업 시험을 루이스는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90명 중에 1등급을 받은 사람은 6명이었는데 루이스와 그의 친구 네빌 코그힐도 그 여섯 명에 포함되었습니다. 루이스는 3중 1등급을 얻은 탁월한 학생이었습니다.

루이스는 대학을 졸업 후 일 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경제 침체로 자리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루이스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유니버시티 칼리지 학장직에 마이클 새들러 경이 취임했는데 그는 루이스의 글을 읽고 그의 글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마이클 새들러의 관심과 철학 교수 에드거 캐릿이 자리를 비우게 되어 철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절 루이스는 시작에 힘쓰며 시인이 되기를 힘썼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시인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했지만, 그는 시를 계속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스의 이런 도전이 루이스가 평생 작가로 또 인문학자로 사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인문학자 루이스는 다양한 훈련으로 다듬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Kangtg1207@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행통의 약속 (롬8:28) 찬 434장

그리스도인은 만사행통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첫째, 행통이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희로애락이 언제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고로 신자는 낙심과 불가능이 없고 소망과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것은 제한된 부류의 사람임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을 사

랑하는 자만이 연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최대의 사랑을 거절 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제한됩니다. 이는 창세 전에 예지, 예정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주장한 제한 속죄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행통의 약속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 화 예정의 목적 (롬8:29-31) 찬 23장

하나님의 예정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변의 진리들을 이해할 때 그 영광스러운 기이한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첫째,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예정하심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며(고전3:16),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벧후1:4)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미리 정하심은 자율주의를 벗어나

신분주의의 삶을 요구합니다. 고로 그리스도인은 이 영광스러운 선택을 받은 자, 곧, 천당밖에 갈 수 없는 유복자가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자기 백성되게 하신 자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셋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십니다. 여기 많은 형제란 만아들을 닮은 아들의 형상, 곧, 기록, 의 그리고 진리(엡4:24)의 성품을 가진 자들의 연합인 보편교회를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려내신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 수 중성이 주실 하나님 (롬8:31-32) 찬 178장

신자의 하나님은 풍성히 준비하신 이레의 하나님 이십니다. 여호와와 산에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첫째, 창세 전에 구원의 선물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전 여호와와 회의에서 결정된 구원을(요 17:1-2) 정한 때에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여러 상징주의와 모형으로 보이던 하나님이 그 실체를 신약시대에 나타내신 것입니다.(요3:16) 셋째,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풍성히 받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 목 참소를 이기는 신자 (롬8:33) 찬 388장

영적 성장의 방해는 사탄의 참소를 이기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째, 사탄의 고소는 우리의 죄책감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죄로 우리의 양심은 소리칩니다. 그 때 신자는 좌절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거나 사탄의 종이 되어 다른 죄로 나가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양심의 악을 깨달아 회개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히10:22) 그리스도의

피흘림이 이 모든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백함으로써 용서받은 자유를 누립니다.(요일1:19)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죄책을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의롭고 보배로 평가하신 그의 선언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책까지 벌써 처리했기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좌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실된 믿음의 자백뿐입니다.(요일1:9)

## 금 정죄할 수 없는 이유 (롬8:34) 찬 184장

그리스도의 구원이 영원한 효력을 가져움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어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속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신 것입니다.(갈2:20) 이런 절대 죽음에서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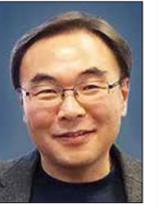
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의 부활로 인해 거듭남을 얻어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 새 생명은 부활 생명, 곧,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동이 가능하고 그의 풍성한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엡3:19) 셋째,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역시, 우리의 승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승리는 우리의 완전 승리입니다. 신자는 그 승리에 발판을 두고 세상을 살기에 큰 담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자리에서 있는 그런 확신과 담력으로 살아갑니다.

## 토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롬8:35-36) 찬 513장

세상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 배후는 어두움의 세력인 마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 환경의 난관을 이깁니다. 환난, 곤고, 박해는 당면한 환경과 관계된 고난들입니다. 소용돌이치는 풍랑처럼 곤경이나 그 결과로 찾아온 곤고나 박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좌절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둘째, 천연 재

해의 위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근과 적신은 천연 재해를 당한 처지에 처할 때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하십니다. 셋째, 체형의 위험에서도 이깁니다. 도살할 양갈이 위험과 칼로 육체의 체형이 가해질 때도 믿음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하게 성령의 부으심으로 받쳐줍니다. 그 사랑에 입 맞추는 성도가 됩니다.

# 기독교교육 (29)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 기독교교육과 계획

교회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기독교교육은 계획, 조직, 실행, 평가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기독교교육행정이라고 부르고, 그와 같은 과정은 필요의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즉, 교회의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순간 교육행정이 개시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필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해. 교회의 교육적인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필요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육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할수록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육적 목적을 설정해야 하고, 목회자는 회중에게 그 목적을 수시로 상기시켜 모두가 숙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회중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체험. 기본적인 필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필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를 느끼는데 있어 직접적인 체험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같은 방에서 유년부 주일학교반을 가르치는 교사나 그 반을 방문하는 부모는 주일학교 교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회중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설문조사.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설문조사함으로써 필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중이 각자 느끼고 있는 필요를 설문지에 나열하게 한다면 리더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모아진 필요들을 회중 전체의 토론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승인. 리더들이 발견한 필요를 회중에게 알리고, 회중이 그에 공감하게 함으로써 필요를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소수가 다수의 생각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를 발견하고 회중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첫단계는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계획의 단계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현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과 미래를 향한 목표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 등을 살펴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수행하는 계획의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 미래 예측
  - 목표 설정
  - 정책 수립
  - 실행과정 설계
  - 프로그램 개발
  - 일정표 작성
  - 예산 편성
- 계획단계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

지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계획은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려면 무엇보다 먼저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실 연구에는, 과거의 기록을 보며 교회가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과 같은, 여러가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기록과 지역사회의 기록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술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의 두번째 원리는 현재와 미래, 알고 있는 것과 미지수에 관한 회중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능한 방법들을 나열하다 보면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리더들과 회중은 모든 해결책을 공개적이고 진솔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획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단계에 창의적으로 동참하면 장애와 반대를 극복할 수 있고 지혜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획의 세번째 원리는 제안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파악하고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살펴본 후에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그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집니다. 이제는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소수의 리더들이 계획사역팀을 이루어 회중이 동의할만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의 개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계획사역팀과 교회운영사역팀 사이에 밀접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 계획사역팀은 모든 회중이 납득할 수 있고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은 조직, 실행, 평가의 행정적인 과정을 거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티드웰(Charles Tidwell)은 그의 저서 Educational Ministry of a Church(교회 교육목회)에서 계획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하나님께 의지한다.
- 실행위원들을 계획에 포함한다.
- 목표에서 시작하여 방법을 계획한다.
- 개인이나 부서보다 교회를 우선으로 한다.
- 필요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 문제만 나열하는 것을 피한다.
- 다양한 장애물을 염두에 둔다.
- 실행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계획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 계획을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한다.
- 글로 남긴다.

계획은 기독교교육행정의 첫 단계입니다. 교육사역을 이끄는 계획이 없으면 회중의 제화하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킹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67. 휴혼(休婚)

오랫동안 혼인관계는 결혼과 이혼으로 양분돼 왔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부끄럽게 생각했고,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봤지만, 요즘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층은 이미 결혼제도에 회의를 느끼면서 결혼 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비혼(非婚)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트렌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결혼제도에 지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부른 결정으로 황혼이혼하는 경우 부부 모두에게 더 큰 재앙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때 휴혼(休婚)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휴혼(休婚)의 뜻

휴혼은 한자로 쉼(休) 혼(婚)으로 '결혼의 휴가 기간(Marriage Vacation Period)'이라고 뜻을 풀이합니다. 직장인들에게도, 병사들에

게도 휴가가 있듯이, 결혼생활에도 잠시 일정기간 휴가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혼을 실감나게 하는 문정희의 '공황에서 쓸 편지'를 소개합니다. "여보, 일 년만 나를 찾지 말아 주세요. 나 지금 결혼 안식년을 떠나요. 그날 우리

둘이 나란히 서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다고 혼인 서약을 한 후 여기까지 용케 잘 왔어요. ... 하지만 일 년만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병사에게도 휴가가 있고, 노동자에게도 휴식이 있잖아요. 조용한 학자들조차도 재충전을 위해 안식년을 떠나듯이 이제 내가 나에게 안식년을 줍니다. 여보, 일 년만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내가 나를 찾아가지고 올테니까요." 아내가 가사와 자녀육아,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봉양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와 갈등, 육체적 피로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결혼 안식년, 결혼휴가, 즉 휴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휴혼은 일정 기간 배우자와 떨어져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둘 사이의 치명적 오류에 숨구멍을 내주는 100세 시대의 긴 결혼생활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묘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2. 헤어지지 않기 위해 휴혼(休婚)

박시현 저<난 지금 휴혼 중

입니다>에 의하면, "2013년 겨울, 결혼을 했다. 2014년 여름,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2017년 가을, 남편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따로 살기로 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사랑은 완벽하지 못했고, 평생을 따로 살아온 두 개의 생활이 겹쳐진다는 것은 생각만큼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사소한 갈등이 증폭되어 부부싸움은 극에 치달았고, 싸우는 소리에 무너진 듯 더 이상 울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 우리는 휴혼을 결심했다. 배우자로서의 애정과 부모로서의 의무는 유지한 채, 집만 분리하기로 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되, 삶의 공간만 분리하는 새

혼), 휴혼(休婚)

졸혼(卒婚)은 '결혼생활을 아예 졸업한다'는 뜻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서로 독립적으로 생활 하는 일본의 결혼풍속이고, 해혼(解婚)은 자녀가 모두 성장하고 출가한 뒤 부부관계를 털고, 서로 간섭 없이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인도의 결혼풍속이며, 휴혼(休婚)은 별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잠시 떨어져 결혼생활을 쉰다'는 뜻의 새로운 결혼 풍속도입니다.

노년의 황혼이혼은 배우자와 법적으로 모든 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혼하려면 현실적인 이유로 망설여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적인 부부관계로 묶인 의무와 권리, 사회적인 합의들을 벗어나려 한다는 데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졸혼, 해혼, 휴혼 등의 단어에는 그리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인 감정이 쉽게 자라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신조어들 자체가 모두 기존 사회에서 이혼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 받아들여졌던 별거의 느낌을 희석하기 위한 말들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휴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

졸혼, 해혼, 휴혼 등은 잠시 일정기간 동안 이혼을 피해볼 보자는 인간적인 불안정한 방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유지, 삶의 공간만 분리

로운 결혼의 풍속도가 휴혼입니다. 휴혼 하기 전에 부부간의 중요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이혼은 생각하지 말고 따로 살아 볼 것. 둘째, 각자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노력할 것. 셋째, 서로 이성문제는 만들지 말 것. 넷째, 떨어져 있는 동안 상대방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으로 보낼 것 등입니다.

3. 졸혼(卒婚), 해혼(解

혼, 해혼, 휴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이 법적인 결혼 졸업이라면, 졸혼, 해혼, 휴혼은 개인의 '자체숙려기간'인 셈입니다. 그리고 졸혼은 남편이 죽는 날까지 졸혼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해혼과 휴혼은 일정기간 동안의 졸혼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개념적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졸혼, 해혼, 황혼이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새로운 결혼 풍속도로 생겨났고, 전

편에 불과하며, 결국 이혼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고, 위장된 속임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같은 새로운 결혼 풍속도들은 인간이 만든 인적 제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성한 결혼제도는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변할 수 없는 신적 제도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지구 온도 1.5°C 이상 ...

(1면에서 계속)

10년 혹은 20년간 매년 해당 기준점을 초과할 경우 폭염 일수가 길어지고 폭풍과 산불이 더욱 강해지는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재앙은 더 큰 피해를 끼칠 전망이다.

그러나 몇 년간 기준점을 돌파한다고 해서 '1.5°C 기준점'이 깨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인류가 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지구 온난화 가속을 막을 시간이 아직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WMO는 지난 2020년부터 향후 1년 안에 '1.5°C 기준점'이 깨질 가능성을 줄곧 계산해 발표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5년 안에 기준점이 깨질 가능성이 20% 미만

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50%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다시 66%로 상승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돌파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1.5°C 기준점 초과'의 의미는?

이는 직접적인 기온 측정치가 아닌, 평균 온도가 장기적인 평균 온도에 비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혹은 시원해졌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에 의존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측정하고자 과학자들은 1850~1900년 사이 평균 기온 데이터에 비교한다.

지난 수십 년 간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2018

년 이 수치를 대폭 수정해 1.5°C만 넘어도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과열된 지구는 더욱더 더워지고 있다. 그러다 2016년에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28°C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98%의 확률로 2027년 안에 더 높은 수치가 관측될 것이라며 또 한 번 최고치가 경신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일시적으로나마 사상 최초로 '1.5°C 기준점'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영국 기상청' 소속 장기 기후 예보 책임자인 아담 스카이프 교수는 "현재 인류는 연간 평균 기온이 일시적으로나마 1.5°C 기준점을 넘을 수 있는 시기까지 왔다. 인류 역사

상 기준점에 이렇게 근접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스카이프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보고된 내용 중 가장 심각하고 명백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해당 기준점이 완전히 돌파됐다고 말하기 위해선 20년간 줄곧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C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는 우리 지구가 과거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1.5°C 기준점을 초과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WMO는 기준점을 초과하는 해가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경보를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엘니뇨의 영향은?

사상 최초로 1.5°C 기준점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엔 2가지 핵심 원인이 있다.

우선 첫 번째는 비록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다.

2번째는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엘니뇨의 발달 가능성이 있다.

지난 3년 동안 적도 부근 열대 태평양에선 라니냐(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가 발달했다. 라니냐는 기후 온난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스카이프 교수는 "올겨울 엘니뇨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예측한 내용이 앞으로 상당히 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년 안에 엘니뇨의

발생 규모나, 이에 따라 5년 안에 발생할 사건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힘듭니다. 즉 앞으로 3~4년간 정도 2.5의 엘니뇨가 이어지면서 지구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 등 지구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은?

이번 WMO 보고서에 따르면 사상 최초로 1.5°C 기준점을 초과할 경우 북극의 평균 기온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것이며, 향후 5년간 북반구에선 겨울철 기온 변동폭이 전 세계 평균치보다 3배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5년간 영국과 북유럽의 5~9월 강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캐나다 \$130, 한국/동남아시아 \$240. 유럽 남미 아프리카 \$240.

6.25 73주년을 맞으며

#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맥아더 장군: "자네는 언제까지 이 호 속에 있을 것인가?"  
 한국병사: "예! 각하,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이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철수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여기 있을 것입니다."  
 "명령이 없을 때엔 어떻게 할 것인가?"  
 "옛! 죽는 순간까지 여기를 지킬 것입니다."  
 "오! 장하다, 자네 말고 또 병사들도 다 같은 생각인가?"  
 "옛! 그렇습니다. 각하"  
 "참으로 훌륭하구나! 여기 와서 자네와 같은 군인을 만날 줄은 몰랐네, 지금 소원이 무엇인가?"  
 "옛! 우리는 지금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농들의 전차와 대포를 까 부술 수 있도록 무기와 탄약을 주십시오"  
 "음... 그리고 또 없나?"  
 "옛! 없습니다."  
 "알았네, 여기까지 와 본 보람이 있군"  
 이 때 맥아더 장군은 병사의 손을 꼭 쥐고 나서 통역을 맡고 있던 김종갑 대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령! 이 씩씩하고 훌륭한 병사에게 전해 주시오, 내가 도쿄에 돌아가는 즉시 미국 지원군을 보낼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훌륭히 싸우라고"  
 6.25 한국전쟁 당시 전선을 방문한 맥아더 사령관과 초병과의 대화를 당시 정일권 장군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



최학량 목사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기념사업회 회장  
미주 한인 군목회 회장 (예비역 육군 중령)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말 휴일을 맞이한 한국, 이제 막 시작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구 소련의 지원아래 북괴 김일성의 명령으로 불법 남침의 한국전쟁은 세계를 분노케 했다. 군사적 열세, 무방비 상태의 우리 군은 삼시간에 서울이 함락되고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맥아더 장군과 한국병사의 대화를 기록한 대로 미약하기 짝이 없는 군사 전력이었지만 장병들의 전투 자세는 결코 유약 무기력 하지 않았다.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적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애국충정과 희생정신은 세계 그 어느 나라 청년들 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자랑스런 장병들 이었다.

국군 통수권자 이승만 대통령은 발빠르게 대책에 힘을 쏟아 부었다. 즉시 일본에 주둔한 국동사령부 맥아더 장군에게 지원 요청을 하고 유엔본부에, 우방 미국 대통령에게 급보를 보내며 급기야 일요일인데도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전쟁에 지원군을 보내는 역사적인 기적을 얻어냈다.

1945.8.15 해방은 미국과 연합군의 승리로 얻어진 해방 이었다. 결코 광복이라고 하기에는 걸맞지 않다.

1948년 악한 마귀 사탄 공산당의 거짓 선동, 선전, 살인 방화 약탈, 테러 전인공노할 사건들, 말로 형언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극한 저항 세력을 극복하며 오직 역사의 직접적인 주권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한민국은 일어섰다. 5.10

총선, 제헌 국회, 헌법제정 공포,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 숨가쁜 정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극복했다.

1948. 8.15는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해로 새 역사의 장이 활짝 열렸다. 건국 까지는 참으로 멀고 험난했다.

좌,우 이념전쟁, 그 무엇보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건국정신과 공산주의와의 치열한 피의 전쟁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자체가 여지없이 훼손 당했다.

펜 대신 총을 달라며 전쟁에 뛰어들던 학도병들의 애국충정은 다 어디로 숨어 버렸는지 모를 일이다.

6.25를 모르는 세대들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전혀 모른다.

북괴 통일전선부의 지령을 받고 노조들을 총동 시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고마움을 모른다. 지금 현 정부도 성공적인 화려한 외교 정책도 굴욕 외교니 외교 참패니 트집을 잡는다. 적화세력, 주사파 종북세력, 북괴에게 적화통일을 채촉하는 역적들이 길길이 날뛰고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주한 미군철수를 부르짖고 자유민주주의의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을 파멸시키기에 급급하다.

사탄의 쫓개들과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심히 위태로운 내 조국이다.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임에 틀림이 없다.

미국의 은혜도 있었다. 자유우방국가들의 은공을 외면했다.

알지도 못했던 나라, 한번도 보지 못했던 한국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외면했다.

한국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그들의 희생은 상상조차 못한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인가? 좌, 우, 진보, 보수의 벽을 넘어 조국의 멸망을 막아 내야 한다.

국익을 우선시 해야 마땅하다. 전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총성 없는 전쟁.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편121:1-2)"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자. 그리스천이라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국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앞에 철저히 회개하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애국충정으로 사명을 다하자.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자. 어두움의 사탄 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기자.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hrc0110@hanmail.net

기/도/칼/럼

## 복된 소낙비를 구하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홍수, 가뭄 자연재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의 퀘벡주 중심으로 번진 산불이 계속 확산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수천 곳에서 산불이 발생, 약 3만8천헥타를 태웠다고 합니다. 남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국토가 소실된 것입니다. 수만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동부와 서부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피해가 더욱 큼니다. 진화작업을 위해 군 병력이 파견되었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1천여 명의 소방인력을 캐나다에 보내 진화 현장을 돕고 있습니다.캐나다 퀘벡주, 온타리오주 일부에서는 스모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산불의 여파로 미국 뉴욕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라진 마스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대낮인데도 뿌연 연기가 도시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도 회색빛에 휩싸여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중서부까지 공기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수위가 넘어선 상태입니다.견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을 바라보며 인간이 자연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맑은 하늘 아래에서 마음껏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일상에서 베푸시는 은총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숨 쉬는 것, 산소를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새삼 감사하게 됩니다.하루속히 캐나다의 대형산불이 진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불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소방인력이 투입되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도 물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소화전은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입니다. 비를 구해야 합니다. 주여, 불타고 있는 캐나다에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소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에스겔34:26)  
 bible66@gmail.com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3년 10월 31일(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찬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